

〈중견기업연합회장〉

강호갑 “규제 심한 한국… 기업인, 까딱하면 범죄자”

정부·정치권에 쓴소리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조속한 규제 개혁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6일 강 회장은 여의도에서 가진 중견기업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해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며 “기업인들이 산업 생태계 속에서 맘껏 뛰놀도록 해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주로 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이 너무 많아서 법을 자꾸만 피해 가야 하고, 그 피한 것을 규제하는 법이 또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규제가 아닌 규율로 가야 하는데, 심한 규제로 한국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하다 보면 까딱

정책 만들고 입법하는 정치인들이 기업인 만큼 절실하지 않아 문제

지자체의 3000억 청년수당 지원
차라리 회사 세워 고용 창출해야

하면 형사사범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규제 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예산 운용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어느 지자체에서 3000억 원을 수당으로 지원하는데, 3000억 원이면 수천 명을 고용하는 우리 같은 회사를 몇 개씩 만들 수 있을 만한 돈”이라며 “차라리 이 돈으로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편이 돈으로 주는 것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 회장은 말했다.

강 회장이 언급한 지자체는 3000억 원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강 회장은 “8년간 중견기업연합회장을 맡으

면서 느끼는 바는 항상 이뤄지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면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는 정치권에서 우리 기업인 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기업들은 어느 시점이 (규제 개혁의 시작점) 되는 지가 중요하다.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는 만큼 시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5일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타다’에 대한 견해도 첨언했다. 강 회장은 “미국의 사법부가 우버와 택시와의 대립에서 우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소비자나 다수를 위해서 한 다는 사회적 컨센서스 덕분”이라며 “공정 경쟁이란 경쟁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경쟁 그 자체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컨센서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커피전문점 하루 38곳 개업… 10곳 중 1곳은 ‘적자’

KB금융研, 시장 여건 분석

지난해 전국에 창업한 커피전문점이 하루 38개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곳 중 1곳은 적자였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6일 발표한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 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000개 미만이었던 커피전문점 창업은 지난해 1만400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폐업도 2배 이상 늘며 9000개로 증가했지만, 창업 증가율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245개 시·군·구 가운데 커피숍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1739개)였

10년새 창업 1만1000곳 증가
폐업도 2배 이상 늘어 9000곳
작년 업체당 영업이익 1180만원

“같은 상권이라도 매출 차이 커
경쟁 과열… 창업 시 주의해야”

다. 이어 경남 창원(1420개), 경기 수원(1321개), 경기 성남(1278개)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커피숍은 서울 중구(8.8개), 대구 중구(7.68개), 부산 중구(6.30개) 순으로 많았다.

커피전문점 수가 느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이다. 세계 평균 소비량(132잔)의 2.7배 수준이다. 돈으로 따지면 지난해 월평균 커피 지출액은 1만5815원으로 5년 전(7597원)보다 108.2% 증가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2016년 5조9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며 “2023년에는 8조6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모든 커피 전문점이 장사가 잘되는 건 아니다. 커피전문점의 총매출은 2017년 기준 7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1% 불었다.

하지만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열 경쟁으로 영업비용은 늘고 있다. 업체당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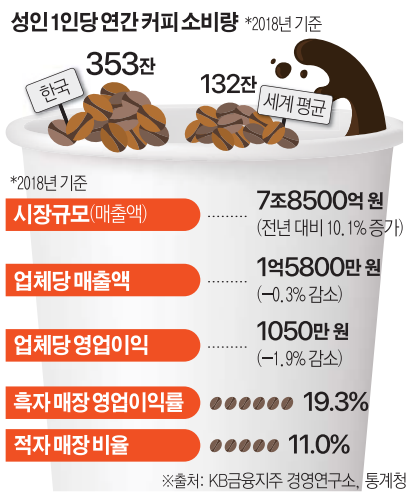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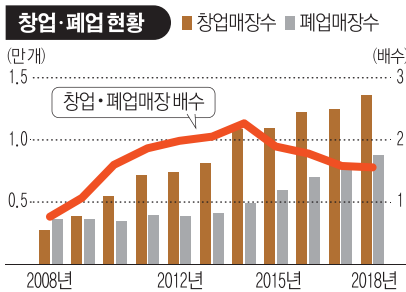
이익은 118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했다. 전체 매장의 11%인 약 7800곳은 적자다.

적자인 곳을 빼면 흑자 매장의 영업이익률은 19.3%로 음식점(17.5%)보다 높다. 직원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비중은 음식점(12.5%)보다 높은 22.6%였다.

김 연구위원은 “커피전문점은 브랜드보다 맛과 접근성,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소형·비프랜차이즈 매장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면서도 “매장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같은 상권이라도 매장별로 매출에 차이가 커 창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국내커피전문점 현황과시장여건





h·point

고객에게 드리는 행복한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캐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워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시세보다 20% 싸진 분양가… ‘로또 청약’ 기름 붓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 (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 여의도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뒀에 걸렸다. 최근 신축 아파트가 3.3㎡당 1억 원에 거래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청약 열기로 인해 결국 정부 규제에 달미가 잡힌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표적은 서울이었다. 상한제 적용 필수조건인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서울만 규제를 적용했다. 경기·대구·세종과 달리 서울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열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지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668만500원에 달했다. 수도권 (1811만3700원), 5대 광역시 및 세종시(1194만9300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 매물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이 수준을 훨씬 웃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난달에 분양한 ‘래미안 라클레시’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 원

3.3㎡당 1억·수백 대 1 청약열기 서울 투기과열 지역 ‘상한제 달미’ “로또분양 미련에 전셋값만 상승” 전문가들 “지정 기준도 모호” 지적

으로 책정됐다. 5000만 원에 가까운 분양가에도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거래가를 봤을 때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와 마용성이 아파트 거래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 3.3㎡당 1억 원에 거래됐을 정도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달 아파트 매매량은 2593건이다. 이 가운데 매매가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에서 거래된 것은 34건, 이번에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32건이 거래됐다. 결국 고분양가에 고가 거래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수준이 견잡을 수 없이 높아졌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요건

※ 출처: 국토교통부

필수 요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 요건	-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가장 최근 분양한 단지 기준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전용면적 85㎡ 이하 10: 1) 초과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선택 요건은 하나만 충족하면 됨. 직전 1년 사이 분양이 없는 경우 시·도 단위 통계를 사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역 발표를 두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8월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제도 시행 영향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돼 큰 여파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다만 공급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를 이끌어내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품질이 낮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산업의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

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저하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신축 단지와 일반아파트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가 이미 선반영돼 있어 추가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 대가 수요가 늘어 전세를 택하는 수요자들이 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가 커 기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에 더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번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 효과를 불러와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상한제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왜 그 동네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부동산 시장 반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 ※ (사업시행인가) 3개 구역, (관리처분인가) 24개 구역, (착공) 2개 구역					
지역	단지수	단지명	지역	단지수	단지명
강남	개포 2	(관리처분인가) 개포주공1, 개포주공4	서초	반포 2	(사업시행인가) 반포주공1(3주구)
	대치 5	(사업시행인가) 대치쌍용1, 대치쌍용2			(관리처분인가) 반포주공1(1,2,4주구)
		(관리처분인가) 구마울1, 구마울3, (착공) 구마울2		방배 4	(관리처분인가) 방배5, 6, 13, 14
				서초 1	(관리처분인가) 신동아
삼성	1	(관리처분인가) 홍실	송파	신천 2	(관리처분인가) 마성클로버, 진주
	청담 1	(관리처분인가) 삼익		문정 1	(관리처분인가) 문정동136
서초	잠원 7	(관리처분인가) 신반포3, 신반포13, 신반포14, 신반포15, 신반포22, 한신4	강동	길 1	(관리처분인가) 신동아1, 2차
		(착공) 반포우성		둔촌 1	(관리처분인가) 둔촌주공
			마포	아현 1	(관리처분인가) 아현2

※ 출처: 국토교통부

“찍힌 곳은 미리 다 올랐는데 공급부족에 집값만 더 뛴 것”

‘시세 선반영’한 적용지역 ‘무덤덤’ 재건축조합, 유예기간 내 분양 속도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는 100%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발표만 오늘 한 거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6일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묻자 심드렁하게 말했다. 국토부는 8일부터 반포동을 포함한 서울 27개 동(洞)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에도 시장 반응은 덩그러니 편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만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반포동 일대가 분양가 상한제 1순위로 거론되면서 이미 정책이 시세에 선(先)반영된 상태다. 집을 내놓을 사람은 내놓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도 정책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이미 1차 가격 조정이 끝났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매물이 추가로 나오고 집값이 안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강남구 일원동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

행될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재건축 추진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로3구역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계자도 “그동안 아현동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은 예상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재건축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내년 4월 28일까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 재건축조합 측은 “유예기간 안에 분양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겠다”고 털어놨다.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B 씨는 “아파트 매입 문의는 줄을 서고 있는데 매물은 하나도 없다. 어차피 이 지역에선 재건축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주민들도 무리해서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요는 분양가 상한제 이전 그대로인데 추가로 나오는 물건이 없으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현동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다고 해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당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상근예비역 없애고 귀화인 병역 의무화

정부, 두 번째 인구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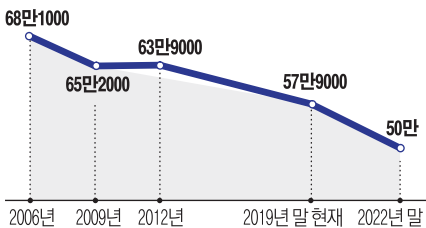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교육), 병역자원 감소 대응방안(국방), 지역공동화 대응방안(지방행정서비스)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됐다.

상비병력 2022년 50만명으로 의경·소방 등 전환복무 폐지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 축소

먼저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드론봇,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올해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 더불어 병력 구조는 초임 간부(중·소위, 하사)를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대위, 중·상사)를 확대하는 항아리형 구조로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소위, 하사 신규 총원 규

군 병력 감축 계획 (단위 : 명)



모는 줄어드는 대신, 육군학생군사학교(ROCT) 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전환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이 현재 27세에서 29세로 확대돼 임용 기회는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소요 병력 충원을 위해 의무경찰·소방·해경 등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

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8개 분야 대체복무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할 방침이다. 현재 전환복무 인원은 2만2000명, 대체복무 인원은 3만 명이다. 또 예비군 중대(7000명)와 군 복지시설(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빈자리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여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 밖에 학령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하고, 초등·중등과 과목으로 구분된 자격·양성체제를 유연화한다. 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경직적인 학사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들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과제도 11월 중에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정무경(왼쪽 다섯 번째) 조달청장이 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2019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보그단 푸시카스(네 번째) 루마니아 조달청장, 권평오(여섯 번째) 코트라 사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조달청

해외IB “韓 반도체 내년 1분기 반등”

“반도체 재고 감소 긍정적 생산·제조업 가동률 선방 소비·건설투자 부진 우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반도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GS), 시티(Citi),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해외 IB들은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반도체 부문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IB들은 우선 광공업생산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예상을 상회했다고 봤다. IB들은 애초 0.5%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 증가했다. 또 제조업 가동률이 73.4%에서 75.6%로 연초 이후 점차 회복 중이며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악의 지점은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12.4%에서 9.7%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메모리 평균판매단가는 보험세를 보이다가 내년 1분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

했다. 반도체 생산목적의 기계류장비 등이 증가한 것은 반도체 반등에 대한 기대를 증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B들은 반도체 재고출하지수의 감소에 주목했다. 전체 재고출하지수는 112.9에서 113.7로 소폭 상승했으나 반도체 재고출하지수는 87.8에서 73.0으로 급락하며 201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재고정리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IB들은 반도체 사이클상 반등을 확신하기에는 이르지만 반도체 재고출하지수의 감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광공업생산 반등이 수요 회복 또는 미중 무역갈등 확대 전 선수출 영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회복 속도 또는 미중 무역협상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IB들은 소매판매 및 건설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9월 소매판매 부진은 이번 산업활동동향에서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2% 감소했는데 민간 고용이 여전히 미약해 향후 소비 반등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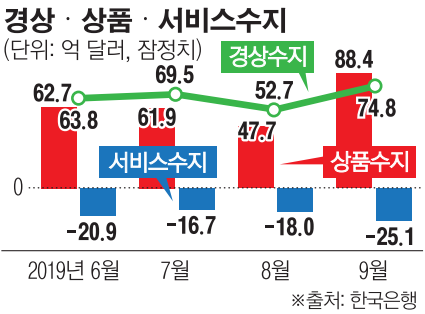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9월 경상흑자 74.8억 달러 ‘11개월 만에 최대’

상품수지 흑자폭 줄었지만 ‘NO재팬’에 여행수지 개선 본원소득수지 5개월째 흑자

9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75억 달러에 육박하며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등 수출부진에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가 계속됐지만, 일본불매운동(노재팬·NOJAPAN)으로 일본 방문객이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해외 배당수입 증가로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5개월째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올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59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93억5000만 달러 흑자 이후 최고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110억1000만 달러 흑자에 비해서는 32.1% 감소한 것이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8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130억1000만 달러) 대비 32.1% 축소됐다. 수출은 460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513억2000만 달러)보다 10.3% 줄었고, 상품수입은 37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383억1000만 달러) 대비 3.0%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수출은 10개월째, 수입은 5개월째 줄어든 것이다.

통관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한 447억2000만 달러를 기

록했다. 반도체(-31.6%), 석유제품(-18.2%)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정보통신기기(39.2%), 선박(31.0%) 등은 증가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5.6% 줄어든 387억4000만 달러를 보였다. 원자재(-13.9%)와 자본재(-0.1%)는 감소한 반면, 소비재(12.4%)는 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2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24억7000만 달러)보다 1.4% 늘었다.

반면 여행수지 적자폭은 7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올 4월 6억8000만 달러 적자 이래 적자폭이 가장 적은 것이다. 중국인(유커) 입국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하면서 여행수입이 17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2014년 10월(17억5000만 달러)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일본행 출국자수가 58.1% 급감하면서 여행지급이 25억1000만 달러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한전, 광주서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개최

전력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전력기술 종합 박람회가 성대한 막을 올렸다.

한국전력(KEPCO)은 6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전력 축제의 장인 ‘2019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BIXPO 2019)’를 개최했다.

‘BIXPO 2019’의 주제는 ‘디지털 초연결 사회와 거대한 변화(Digital Platform : Hyper-Connectivity & Mega Shift)’로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촘촘하게 이어진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변화(Mega Shift)에 주목한다는 의미다.

올해 행사에서는 299개 기업이 참가하는 신기술전시회와 51회 국제콘퍼런스, 국제발명특허대전,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차상균 서울대 교수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광주=노승길 기자 noga813@

외투기업 4곳 중 3곳 “한국 경영환경 불만”

고임금·노조 리스크 ‘낙제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만족도는 저조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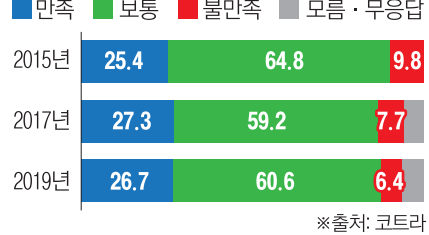
특히 지난 2년 새 노무, 연구개발(R&D) 환경 등은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가 6일 발간한 ‘201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내 외투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345명)의 26.7%만 전반적으로 경영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조사의 ‘만족률(27.3%)’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며 이전 정부 시절인 2013년 조사 때(47.5%)보다는 20.8%포인트(P)나 급감한 것이다.

‘보통’이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과 ‘모름·무응답’이 각각 6.4%로 동일했다.

외투기업 한국 경영환경 만족도 평가 (단위: %)



항목별로 보면 노무 환경과 R&D·혁신 환경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18.3%로 최악의 수준이었다. 지식재산권 보호(21.7%)와 세무(26.1%) 등의 만족도도 비교적 낮았다.

반면 입지(43.2%)와 물류(35.7%), 금융(31.7%) 환경 등은 30% 이상의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무 환경의 경우 높은 임금 수준과 인력 수급, 노조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R&D·혁신 환경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민주, 非文 금태섭 포함 ‘파격’…한국 ‘그 나물에 그 밥’

총선거획단 면면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근 나란히 '선거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총선기획단 인선에 담겨 있는 여야의 속내가 대비되고 있다. 당의 내부 상황을 타개하고자 총선 체제를 조기 가동했다는 맥락에서는 양당이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통합을, 한국당은 현 지도부의 영(令)을 세우는 실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총선기획단은 선거와 관련된 조직, 재정, 홍보, 정책, 전략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실무가다. 여당인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김태선·강훈식·제윤경·정은혜 의원이 총선기획단에 포함됐고, 원외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 가운데는 프로젝트이며 출신 유튜브 황희두 씨가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여성 5명 청년 4명
당내 통합·다양성에 방점

한국당은 女 1명, 청년 0명
親황교안·영남 중심 체제로

민중당의 총선거획단 구성에는 '조국 사태' 이후 지도부 쇄신론이 나오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문(비문재인)' 금태섭 의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펼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조차 "금 의원의 '다름'을 사버리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친문(친문재인) 순혈주의'를 깨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정국에서 당내 의견이 나뉘고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선거’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당을 추스를 필요성이 있었다”며 “(총선거획단 출범 이후) 지도부 쇄신론이 어느 정도 잦아든 것

을 보면 어느 정도 통합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성 5명(33%), 청년 4명(27%)을 포함하면서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한국당도 민주당과 같은 날(4일)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며 총선 준비 모드를 본격화했다. 단장은 당 사무총장인 재선 박맹우 의원이 맡았다. 총선기획단 위원으로는 이진복 의원(총괄팀장), 추경호 의원(간사)을 비롯해 박덕흠, 홍철호, 김선동, 박완수, 이만희, 이양수, 전희경 의원 등이 합류했다.

한국당의 총선거위원단의 특징은 △'친황(친황교안)' △영남 중심 △현역 의원 등으로 요약된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확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당 총선거위원단은 12명 중 10명이 현역 의원이다. 여성은 전희경 의원 1명뿐이고, 20·30세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과 대조적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인 단장, 팀장, 간사 등 모두가 영남의 원에게 돌아가면서 지역편중 우려도 나온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유충현 기자 lamuziq@

황교안 “유승민과 우파 통합 다질 것”

통합협의기구 구성 제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의 유승민 대표와의 자유우파 통합 의지를 공식화했다. 패스트 트랙 공천 가산점 말 바꾸기 논란, 외부 인재 영입 비판, 당 지지율 하락 등 지도부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보수 빅텐트'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내에서 중진의원 용퇴 등 보수 대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회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통합협의기구에서 통합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

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밑에서 하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정마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반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당내 통합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우 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과도 직간 접적 논의와 소통을 해왔다”면서 “이 들과 함께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만드는 모든 분과의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 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보수진영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나 책임론을 벗어난 통합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하늬 기자 honey@



강경화 장관, 크라크·스틸웰 회동 강경화(왼쪽 세 번째)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서 미국 키이스 크라크(두 번째) 국무부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틸웰(맨 오른쪽)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ILO협약 비준’ 합의될까

탄력근로제 연장 놓고…與 “6개월” vs 한국당 “1년”
야당 “ILO 핵심협약 비준 땐 기업 어려움 가중 우려”

노동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과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회의 본격
적인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가 정기국회 종료(내달 10일) 전까지 합
의점을 찾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현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최종 의결한 단위기간 6개월(현행 3개월) 연장 합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화의 첫 성과물인 6개월 연장을 넘어서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등은 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재량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여당은 탄력근로제 연장 시행을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주문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회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안에는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적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또는 인가연장근로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이 시행되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며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패키지로 협의하는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돼지열병’에 자존심 굽힌 中 ‘외교갈등’ 加 육류수입 재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사의 명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이후 캐나다에 날을 세웠던 중국이 캐나다산 육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양국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국민식량’인 돼지고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중국이 대륙의 자존심을 굽혔다는 평가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6월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지 5개월 만에 이를 재개할 전망이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중국 수출이 곧 재개된다”고 밝혔다. 캐나다 육류 대표단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5일 중국이 캐나다산 육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조사 결과, 돼지고기 수출 서류에서 위조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령을 선언했다. 중국은 수입 과점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

돼지고기 공급 부족 시달리자 5개월 만에 캐나다 규제 해제 명완저우發 냉기류 해소 촉각

만, 캐나다 사법당국이 미국의 송환 요청을 받고 명완저우 화웨이 CFO를 밴쿠버에서 긴급 체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중국은 그 며칠 후 캐나다인 두 명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고, 또 다른 두 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도 중단했다.

이후 중국의 캐나다산 육류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5월 이후 캐나다의 대중국 육류 수출액은 월 40만 달러로 1억25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중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규모만 5억14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캐나다에 세 번째로 큰 돼지고기 수출 시장이었다.

큰 비중을 차지하던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이 급감한 데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ASF로 돼지고기 공급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다. FT는 ASF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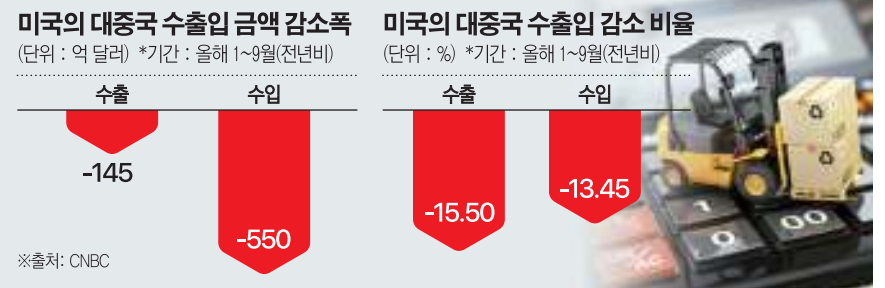
로 중국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절반가량이 도축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며 대응에 나섰지만 자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두 배 이상 뛰었음에도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고기 수입이 절실한 중국으로서는 등을 돌렸던 캐나다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지속되던 양국의 갈등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인 것은 9월이다. 트뤼도 총리가 세계 최대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컴퍼니 회장을 지낸 도미니크 바튼을 새 주중 대사로 임명하면서다. 주중 캐나다 대사는 존 매켈럼 전 대사가 1월 중국 매체와의 회견에서 “명완저우 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으면서 해임된 이후 7개월간 공석이였다.

지난주에는 크리스티아 프틸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이 총페이우 신임 주캐나다 중국 대사의 임명을 받아들이면서 양국 관계 회복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

김서영 기자 0jung2@



제 발등 짚은 美·中 무역전쟁

美 상무부 9월 무역통계
中 대미 수출 530억 달러 줄 때
美 대중 수출 145억 달러 감소

미중 무역전쟁 종전이 임박하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위한 득실 계산이 정치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로 떠올랐다.

CNBC방송은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9월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패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액상으로는 미국이 무역전쟁의 승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530억 달러(약 61조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수출은 145억 달러 줄어 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수입보다 훨씬 적게 중국으로 수출해 퍼센트(%) 기준으로는 중국보다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지적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13.5%)보다 훨씬 컸다.

개별 산업으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미국이 받는 고통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 1~9월과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미국산 광물과 철강석 대중 수출은 65% 급감했다. 폐기물·고철 수출이 65%, 목재 49%, 임산물 39% 각각 감소했다. 그밖에 미국의 농산물 대중 수출은 20

억 달러, 교통 장비는 58억 달러 각각 감소했다. CNBC는 특히 교통 장비 수출이 급감한 것에 대해 보잉 737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좋은 소식은 미중 양국이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그동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산업들이 급격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국 기업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도 찾았다. 그러나 중국 고객이 이미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다면 미국 수출업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CNBC는 지적했다.

양국 모두 무역전쟁으로 전체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미국의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억 달러(0.9%) 줄어든 2060억 달러를, 수입은 44억 달러(1.7%) 감소한 2584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중국의 9월 수출은 미국 달러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2% 줄어 2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입은 8.5% 감소로 시장 예상(-6.0%)보다 훨씬 부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마이클 이바노비치 박사는 최근 CNBC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중국의 무역협상 타격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중국은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두 나라가 살고 세계 다른 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대선 풍향계’… 4개주서 지방선거

미국에서 5일(현지시간) 내년 11월 대통령선거 전초전이 될 ‘지방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켄터키 루이스빌에서 주지사 선거 개표를 지켜보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켄터키와 버지니아, 미시시피, 뉴저지 등 총 4개 주에서 주지사나 주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루이스빌/로이터연합뉴스

‘알리페이’만 깔면 관광객도 ‘현금프리’

中 알리바바 “외국인 편의 제공” 모바일 결제앱 해외버전 내놔

앞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현금을 들고 갈 필요가 없게 됐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산하 앤트파이낸셜은 이날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페이의 해외 버전을 출시했다. 이로써 중국에 놀러 가는 관광객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도 모바일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거지도 모바일이나 QR코드로 구걸을 할 정도로 현금 결제를 취급하는 상점이 줄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알리페이는 외국인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불카드 상품을 내놔다. 알리페이 사용자들은 해외 직불카드 및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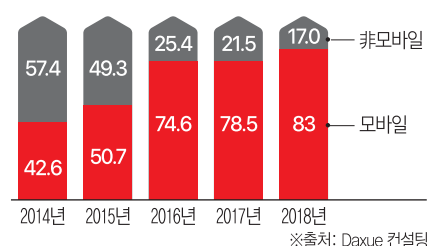
카드를 통해 선불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해당 선불카드는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잔돈은 자동 환불된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속도는 눈부시다. 인민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모바일 결제 거래 규모는 42조 달러(약 4경8648조 원)로 5년 전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주도하고 있다. 사용자가 10억 명 이상으로 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가 모바일 결제로 교체되고 있다. 택시부터 고급 쇼핑물까지 모든 생활이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알리페이의 해외 버전 출시로 이제 중국

중국의 결제방식 점유율 (단위: %)



방문 외국인들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하는 불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앤트파이낸셜도 알리페이 해외 버전을 통해 수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3100만 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돈만 해도 730억 달러에 달한다. 방문객 수와 지출 규모 모두 1년 전에 비해 각각 5% 증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G2 무역전쟁 혜택 못 본 印尼 ‘노동·투자개혁’ 팔 걷어붙인다

법규·법인세 완화로 투자 러브콜

미중 무역전쟁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에 따른 혜택을 본 가운데 손만 빠는 신세가 됐던 인도네시아가 절치부심의 자세로 나선다.

지난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제조업을 육성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동과 투자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9월 충격적인 현실을 깨닫게 됐다.

세계은행(WB)이 조코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에서 6~8월 해외에 새 공장을 세우거나 현지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중국 기업 33곳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곳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WB에 따르면 베트남은 확실한 승자였고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인도네시아보다 더 선호받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P) 비율에서 인도네시아는 1.9%로, 베트남(6.3%)과 태국(2.6%)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 뒤처졌다.

인도네시아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만 해도 29%에 달했으나 현재 20% 미만에 그친다. 아시아 공산품 수출에서 인도네시아 비중은 2.3%로, 각각 3.1%인 말레이시아, 태국을 밀돌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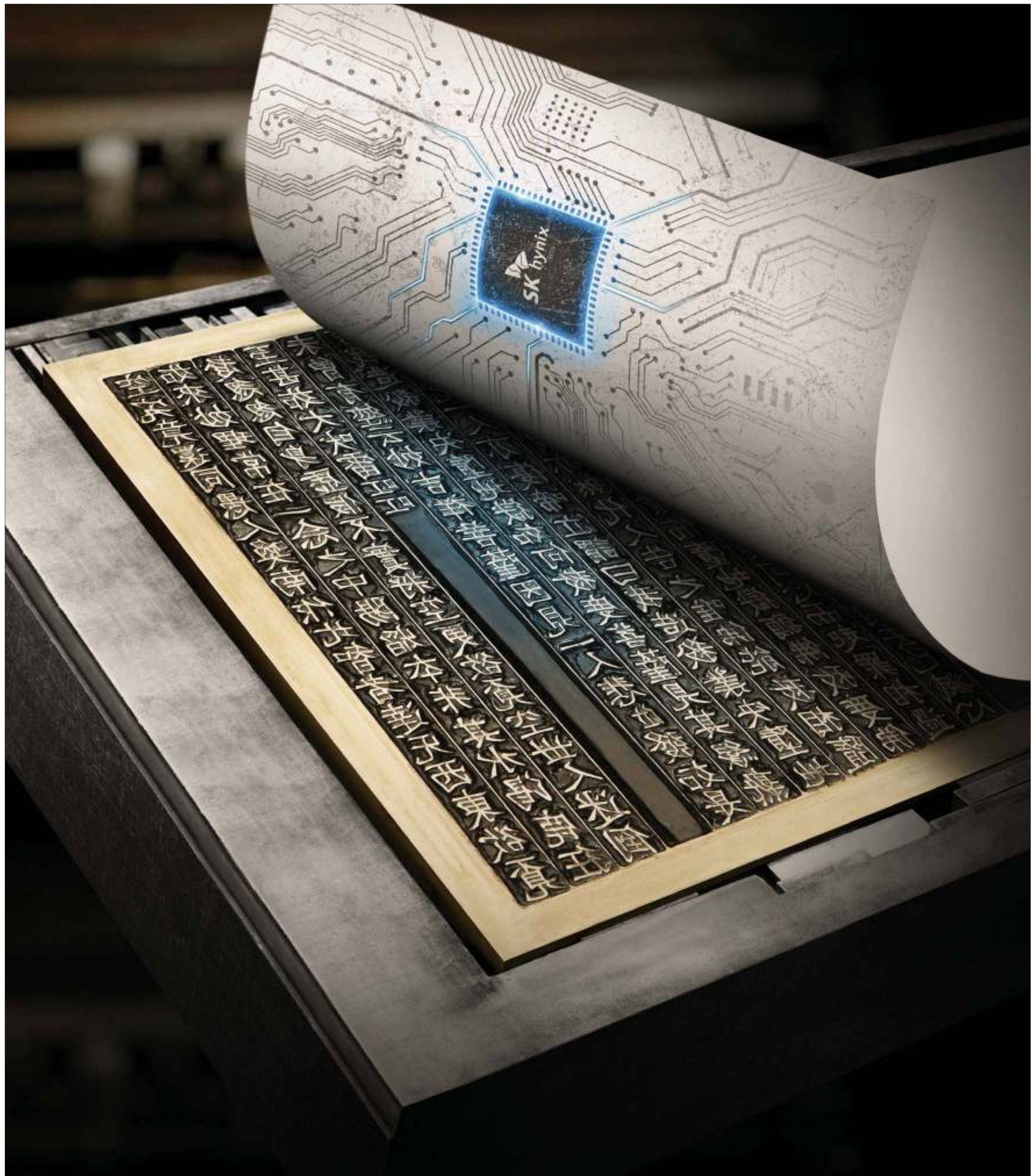
불충분한 인프라와 엄격한 노동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 제한, 관료주의 장벽 등이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밀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노동과 투자 관련 규제 개혁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놓았다. 특히 주마다 각각 다른 복잡하고 중복된 노동법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업들도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와 경직된 채용 시스템 등이 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조코위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일부 노동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동조의 반발을 우려해 새로운 완화정책은 신규 취업자로 적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특별경제구 안에서 헬스케어와 교육, 의료 등 일부 산업에 대해 외국인 자본 100% 보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법인세율이 현재 25%인데 이를 2021년에는 2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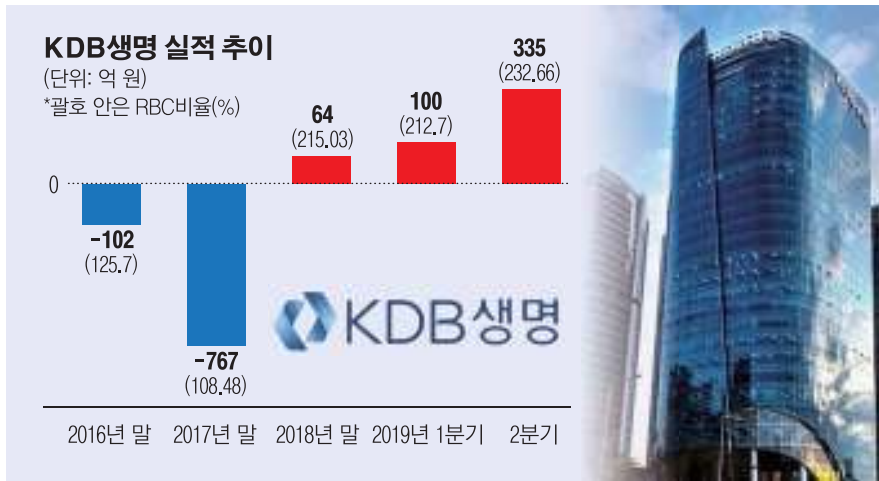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의 고장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반도체를 만듭니다

금감원, 매각 앞둔 KDB생명 ‘경영실태평가’ 착수

예보와 18일부터 4주간 공동검사
유증·후순위채 발행 확대 초점
이자 증가 등 건전성 집중 점검
결과 따라 매각절차 희비 갈릴 듯

금융감독원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KDB생명보험의 경영실태평가(RAAS)에 착수한다. 경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등급이 낮으면 경영 개선을 요구받거나 부실 금융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KDB생명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KDB생명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은 2014년 종합검사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검사는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요청으로 함께 진행된다.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 △보험 리스크 △금리 리스크 △유동성 △자본 적정성 △수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각 1~5 등급으로 부문별 점수를 매긴 후 다시 종합등급(1~5등급)을 결정한다. 종합등급이 낮고 RBC(보험금 지급역력) 비율도 100% 미만이면 금감원이 임원진 교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는 평가 주기와 리스크 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며 “KDB생명은 연초 검사계획이 예정돼 있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각을 앞둔 만큼 경영실태평가가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안 좋을 경우 매각을 앞둔 KDB생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재무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표상으로 보면 KDB생명의 RBC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덕분에였다. 2016년(125.7%)과 2017년(108.5%)에는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RBC 15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후순위채·영구채 발행 규모가 커진 만큼 KDB생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

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KDB생명의 후순위채 규모는 5550억 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에 이자비용이 120억 원 상단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57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은 가치적인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RBC를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후순위채·영구채 발행→역마진 발생→유상증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네 번째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예비입찰을 통해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적격 인수후보(쇼트 리스트)를 발표한다.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매각을 종료하는 것이 목표다.

서지연 기자 sjy@



손해보험사 대표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소비자 신뢰회복과 가치경영'을 담은 자유결의를 선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손해보험협회

“불완전판매 근절” 머리 맞댄 손보사 수장들

17개 회원사 참석 사장단 회의
분쟁 예방 개선 프로세스 마련
설계사 모집 경쟁 자제 등 합의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건전 경영과 불완전판매 근절에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혁신 서비스 도입과 함께 신시장 개척 등에 대해서도 업계가 머리를 맞대 모색하기로 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들은 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소비자 신뢰회복과 가치경영’ 등을 담은 자율 결의를 선포했다.

이번 자율 결의에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코리안리재보험, SGI서울보증, AXA손보, AIG손보,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BNP파리바카디프, ACE손보 등 손보협회 회원사 17곳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블랙리스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저금리 기조 확대, 국내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에 따라 올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각각 1조9000억 원, 1조2000억 원 등 총 3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등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과 민원 자율 조정에 업계가 함께하기로 했다. 상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리스크 검증과 사후 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상품 개발도 지양하기로 했다.

건전 경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업비 집행과 불완전판매도 합의했다.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시책도 자제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작성)계약’을 차단하는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 서비스와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중장기 성장 전략도 업계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성

과 위주이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설계사, 간편청구 등 새로운 혁신 서비스 도입과 상품 개발에 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소비자, 보험 관련 업계와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의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마련을 업계가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손보업계 사장단은 “업계가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중심 포용적 가치 실현을 공통 목표로 설정한 만큼, 오늘 결의가 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타당포인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덕 회장은 “업계 스스로가 단기 외형 성장이 아닌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면서 “혁신 서비스와 상품 개발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보험시장 발굴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기존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제고 등 ‘포지티브 경쟁’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은성수-윤석현 ‘두 번째 독대’ DLF·키코 등 의견 조율 촉각

금융위 정례회의 후 회동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금융감독장장이 단독 회동에 나선다.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면담으로 산적한 금융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난 후 ‘티타임’ 형식으로 단독 면담을 한다.

두 수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 사태 관련 제도 개선 종합대책,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 조정안, 인터넷신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등 굵직굵직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 위원장은 9월 19일 금감원 본원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윤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은 금융위, 금감원 간 협업을 강화하고, 매월 첫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전후로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간 2인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조만간 발표할 DLF 사태 관련 재발 방지책과 키코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10월 말~11월 초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



은성수

윤석현

으로 고려해 금융위와 최종적으로 논의한 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늦어도 11월 초로 예상했으나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키코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으로서는 처음으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와 만나 한 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이래 키코 사건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준비해왔지만 전임 최종구 위원장 시절 키코에 대한 견해차로 동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

은 위원장이 조봉구 분조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보상안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 위원장이 면담 내용을 윤 원장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키코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일 경우 금감원 분조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지난달 말까지 키코 분조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오픈뱅킹’ 일주일 만에 102만명 가입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02만 명이 가입했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가입자는 102만 명이었다. 1인당 평균 1.8개의 계좌를 등록해 모두 183만 계좌가 등록됐다.

이용 건수는 1215만 건으로 하루 평균 174만 건을 이용했다. 잔액조회가 894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금이체는 22만 건,

기타 API 이용은 299만 건이었다.

금융위는 “2018년 1월 오픈뱅킹을 도입한 영국이 1년 후 일평균 200만 건에 이르는 상환입을 고려할 때 국내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범 실시 초기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은 다음 달 18일 정식 서비스 출시 전에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조화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과 예·적금이나 수익증권 계좌 등록이 안 되는 문제점은 이달 중에 해결하기로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추가 지정

금융위원회는 6일 제9차 혁신금융 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4월 금융샌드박스 시행 후 총 60건의 서비스가 지정돼 상용화를 앞두고 됐다.

주요 서비스로는, 먼저 가스·재난배상책임보험 등 법인 사업자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을 모두 온라인화하는 삼성화재 ‘온라인페이퍼리스 계약’ 서비스가 지정됐다. 기존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 시 법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개선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소속 직원의 온라인 본인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서 보험 가입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시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져 수수료 부담률이 높았다. 이 경우 판매대금의

4%와 별도 수수료 1000원 등이 부과됐다. 하지만, 새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매대금의 1.5%만 부담하면 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핀테크 기업 가운데 엠마우스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 월급 중간정산 즉시 지급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이밖에 특허기술 경제가치 평가(위즈도메인)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으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비씨카드, 국민카드)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문(한국투자증권)이 각각 추가 지정받았다.

정용욱 기자 dragon@

〈삼성전자〉

AI·양자컴퓨터… 新성장동력 공들이는 이재용 부회장

요슈아 벤지오·세바스찬 승 등 글로벌 AI 석학들 만나
美서 ‘CEO 서밋 2019’ 개최… 미래IT 개발 전략 논의

삼성전자가 AI(인공지능)와 양자 컴퓨터 등 미래 IT 업계 판도를 바꿀 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AI 석학들과 머리를 맞댔고, 미국에서 열리는 ‘삼성 CEO 서밋’에선 양자컴퓨터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6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세바스찬 승(한국명 승현준) 프린스턴대 교수와 만나 미래 AI 산업 발전 방향과 삼성전자의 AI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각의 한계를

허물고 미래를 선점해 가자”고 말했다.

딥러닝 관련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 얀 러쿤 뉴욕대 교수, 앤드루 응스탤퍼드대 교수 등과 함께 AI 분야 세계 4대 구루(Guru)로 꼽히는 인물이다.

벤지오 교수는 차세대 음성인식 성능 혁신을 위한 신경망 네트워크 설계 및 학습 알고리즘 개발 분야의 권위자다. 지난해에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Turing Award)’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몬트리올에 인공지능랩을 설립해 벤지오 교수와 공동으로 영상·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벤지오 교수는 4~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날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 ‘삼성 AI 포럼 2019’에 연사로 참여해 메타 러닝과 강화 학습 등 딥러닝 분야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세바스찬 승 교수는 뇌 활동을 모방한 뇌 신경공학 기반 인공지능 연구를 개척한 세계적 석학이다. 2018년부터 삼성리서치 CRS(Chief Research Scientist)를 겸직하며 삼성의 AI 전략 수립과 선행연구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CEO 서밋 2019’를 개최하고, AI를 비롯해 양자 컴퓨터 등 미래 성장동력 찾기에 나선다.

특히 삼성이 최근 투자한 양자컴퓨터 개발업체 아이온큐(ionQ) 창립자인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 교수는 ‘융합’을 주제로 열리는 CEO 서밋에서 양자컴퓨터 개발 현황과 향후 양자컴퓨터를 통해 이를 수 있는 미래 세상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2015년 크리스토퍼 먼로 메

릴랜드대 교수와 아이온큐를 공동 설립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분야의 양자컴퓨팅 개발 프로젝트에서 수석 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아이온큐는 ‘원자 시계(Atomic Clock)’ 기술을 활용해 매우 작은 크기로 양자컴퓨터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스타트업이다. 예를 들어 손목시계나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제품에 지금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는 빠른 칩들이 들어갈 수 있다.

손영권 삼성전자 최고전략책임자(CSO) 사장은 “양자컴퓨터 기술은 현재 초기 단계지만 트랜지스터, 레이저, 휴대폰처럼 삶의 일상을 확 바꾼 혁신기술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며 “신약, AI, 획기적인 신재료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 CNS 지분 35% 맥쿼리PE에 넘긴다

〔주〕LG는 LG CNS의 35%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맥쿼리PE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맥쿼리PE가 제시한 매각 대금은 1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LG 측은 “맥쿼리PE는 거래 가격 외에도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와 스마트 물류·인프라 투자로 축적한 글로벌 역량을 갖췄다”며 “LG CNS의 사업경쟁력 강화, 중장기적 성장 방향 등 경쟁력 있는 협력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전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도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비가격적 요소에서 맥쿼리PE가 우위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LG와 맥쿼리PE는 조만간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 LG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문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성사 땀 일감몰아주기 해소
매각대금 1조 신사업 투입

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체제 들어 자회사 보유지분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구광모 회장과 LG 총수 일가가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를 미래에셋대우에 넘겼다. 또 계열사 서브윈의 소모성 자재구매부문(MRO)을분할하고,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특히 LG그룹은 이번 CNS 매각으로 약 1조 원의 매각 자금을 수혈받게 된다. 실탄을 확보한 LG그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LG 경영전략팀장에 인수합병 전문가인 인&컴퍼니 코리아 대표 출신 홍범식 사장을 영입했다. 올해 들어선 지속적으로 전장, 로봇, AI(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및 지분 투자 등에 나서고 있다.

LG CNS 역시 맥쿼리PE와의 협업을 통해 새 먹거리 발굴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LG CNS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 기술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개발은 물론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강조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실행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다.

호주에 기반을 둔 맥쿼리PE는 최근 영국 통신사 KCOM, 덴마크 통신사 TDC 등 인프라 자산에 AI와 IoT, 5G(5세대 이동통신),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올 10대 기계기술’ 선정

LG전자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18회 기계의날 행사에서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을 수상했다.

6년 연속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LG 제품은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사진)다. 제품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멀티브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외 온도와 습도까지 감지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치 상태 등에 맞춰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25% 낮춰준다.

자동 시운전 기능도 갖춰 센서부터 전자 팽창밸브(EEV)까지 제품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해 설치 불량률도 예방해준다.

이외에도 LG전자가 개발한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를 지녀 높은 냉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 너무 넓어 ‘혈족 4촌·인척 2촌’으로 줄여야”

한경연 ‘법령 개선안’ 보고서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을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산하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거에 설정된 채로 이어져 온 ‘혈족 6촌, 인척 4촌’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피를 나눈 가족 구성원이라는 ‘혈족’의 의미를 고려하면 ‘6촌’이라는 범위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 범위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나 생활의 교류관계

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그러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외국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3촌’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일반적이다.

그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대체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이 설정돼 우리나라보다 그 범위가 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숙부, 숙모, 이종·고종사촌 및 조카 등을 명시적으로 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준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과감하게 그 범위를 1촌 이내의 친족으로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다품종 소량생산’ 현지 맞춤형 전략

유럽 영토 넓히는 두산인프라코어

이탈리아에 특수건설장비 론칭
네덜란드선 새 딜러사와 계약



두산인프라코어가 유럽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이 특화돼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만의 강점이 특수장비 틈새시장 공략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4일(현지시간) 무게 20톤, 높이 18m에 달하는 건설장비(DX235NLC-5 DM·사진)를 이탈리아 시장에 론칭했다.

DX235NLC-5 DM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모델로 특수장비(High Reach Demolition)에 속한다. 특수장비는 토양 굴착 용도 외에 파쇄, 채굴, 드릴링, 산림 등의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개조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낮았던 특수장비 판매를 위해 올 초 중국을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유럽으로

서서히 확산하고 있다.

현지 상황과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 제작된 DX235NLC-5 DM은 간단한 모듈 변경으로 파쇄 또는 철거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두산인프라코어는 같은 날 네덜란드 전체 영업망 확대를 위해 현지 딜러사 ‘닐랜드’와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 두산인프라코어 유럽법인은 올 들어 시멕스(CEMEX)에 휠로더 100대, 뷰록(Beuloc)에는 굴착기 80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두산밥캣으로부터 유럽 사업권을 가져온 두산인프라코어는 본격적인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으며, 실질적 성과도 내놓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국타이어, 컴파운드 개발에 AI 활용

개발기간 절반으로 단축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타이어)를 활용한 타이어 컴파운드 물성 예측 모델 ‘VCD(Virtual Compound Design)’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VCD 시스템은 타이어 컴파운드 개발 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컴파운드의 특성을 예측해 최적의 컴파운드 조합법을 만드는 기술이다.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등 15종 이상의 재료가 혼합된 타이어 컴파운드는 각 원료의 조합 비율뿐 아니라 온도, 도구, 배합순서, 압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컴파운드를 개발하는 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 소요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이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만들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현실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해 향상된 결과값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올해 초 KAIST와 맺은 미래 기술 연구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컴파운드 물성 예측에서 인공지능 기술 접목에 성공한 한국타이어는 앞으로 재료 선별, 설계, 타이어 설치 테스트, 생산 및 양산에 이르는 타이어 개발 전 과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개발 분야에 한정 짓지 않고 재료 공급, 디자인, 연구개발, 시험, 생산, 유통(SCM), 고객 사용에 이르는 타이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혁신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고위직 꺾차는 외국인들… 영어가 ‘자리’ 좌우

- 1 대기업 ‘별’이 지기 시작했다
- 2 나는 이렇게 대기업 ‘별’이 되었다
- 3 ‘진상’과 ‘방상’ 임원 전성시대
- 4 권오현이 말하는 초격차 임원 DNA

현대기아차 A 상무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임원이 많아지면서 고민이 늘었다. 현대기아차는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국계 인재를 임원급으로 속속 영입하고 있는데, 결정권자인 이들 외국인 임원과 실무급 회의를 할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 외국인 임원과 유학과 실무진이 영어로 토론할 때면 영어에 익숙지 못한 토종 한국 임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 일쑤다. 결국 A 상무는 회의가 끝나고 실무진에게 다시 보고받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 임원이 많아지면서 사내 분위기도 바뀌었다. 영어에 자신 없는 임원들은 ‘한국인 책임자’ 밑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인사철을 앞두고 물밀 작업이 한창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인 부사장 또는 전무 아

래에는 한국계 임원과 간부 사원이 넘치고 있다. 반대로 영어에 능통한 젊은 직원들은 외국계 고위 임원 밑에서 일하며 빠른 승진과 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된 금호타이어의 B 임원은 중국어 공부에 한창이다. 중국계 고위 경영진과 직접 대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 금호타이어 임원들은 뒤늦은 어학 공부로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나섰다. 이 같은 모습은 과거 쌍용차가 중국 상하이그룹에 넘어갔을 때도 연출됐던 장면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임원 DNA가 자의 반타의 반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또는 국내 경쟁사 출신의 인재를 영입하는가 하면, 회사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의사결정권자가

삼성전자, MS 출신 박사 등 AI 분야 인재 대거 영입
현대·기아차 각각 BMW·폭스바겐 출신 사장 모셔와
토종 임원들 회의때 꿀 먹은 벙어리… 자리 이동까지
중 기업에 인수 금호타이어 임원들 중국어 공부 한창

외부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난해 11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글로벌 혁신기업인 3M 출신의 신학철 수석 부회장을 LG화학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해 재계를 놀라게 했다. 신 부회장 발탁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었다. LG화학이 CEO를 외부에서 영입한 것은 1974년 창립 이후 처음이었다.

또 비(非)화학 관련 전공 출신자를 뽑은 것도 이례적이었다. 기존 LG화학 CEO는 전통적 화학 사업에 정통한 전공 출신이 많았으나, 신 부회장은 화학 전공이 아닌 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출신이다.

LG화학은 최근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에서 신소재,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생명과학 등 첨단 소재·부품과 바이오 분야로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 부회장의 소재·부품 사업 통찰력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기아자동차는 독일 폭스바겐 출신의 피터 슈라이어 사장을 영입해 기아차의 부흥을

일으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 부회장은 기아차 사장이던 2000년대 중반 피터 슈라이어 사장을 기아차 최고디자인 책임자로 앉혔다. 피터 슈라이어 사장은 ‘디자인 혁신 경영’을 선언하고 ‘K 시리즈’,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 흥행시켰다.

현대차그룹의 외부 인재 수혈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독일 BMW 출신의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 사장, 영국 자동차업체 벤틀리 출신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디자인최고책임자 사장, 벤틀리 출신 디자이너 이상엽 전무 등이 현대차에 영입됐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의 AI 석학인 래리 헉 박사를 비롯해 AI 로봇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니엘 리 박사, 뇌 신경공학 기반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 세바스찬 송 박사, AI 프로세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버드대 위구원 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최신의 기술을 공부한 외부 또는 젊은 인재들의 역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임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과 순발력이 없다면 자연도 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ULFATE(황산염)·함성색소·인공향
함성방부제·실리콘오일

5
無
첨가

내 아이 만큼은
깨끗하게 사랑하세요

좋은것을 먹는 것 만큼
좋은 샴푸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의 착한 성분만을 담은 오무오무로
건강한 반려생활을 시작하세요

Pure of Love.

omu
omu

www.omuomu.co.kr



권오현 회장이 말하는 임원이란?



- ‘뇌’처럼 일해야 한다
- 개인의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라
- 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의 성장을 이끌어라
- 업무의 양을 무조건적으로 늘리지 마라
- ‘찾은 회의’는 오히려 독이다

“몸 총괄 하는 ‘뇌’처럼 일해야 회의 자제하고 일과 삶 균형을”

직원들 사사건건 통제?
리더가 할 일 아닙니다

“이제 임원이 됐으니 직장이나, 가정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198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그는 처음 임원이 됐을 때 선배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었다.

권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저서 ‘초격차’를 통해 임원이 무조건 일을 많이 하거나, 이를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질 때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다.

권 회장은 “신임 임원들은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성과의 양을 늘리려고 한다. 하지만 죽기 살기로 24시간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제 무지막지한 경영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부하들과의 회의를 지나치게 자주 하는 것 또한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직접 여러 부서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면, (일부 임원들은) 자신의 실력이 향상됐다고 착각한다”며 “그러나 그 지식은 이미 회사 내에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조직의 리더군에 속한 임원은 ‘뇌’처럼 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뇌가 신체와 장기들의 기능을 총괄할 뿐,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며 “리더는 조직원을 사사건건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가 간접적으로 장기의 기능을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리더는 조직원의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잘 구축해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은) 부하 직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직원들을 자식 돌보듯 따뜻하게 대하고, 격려해 성장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부하들을 뒤통에서 부서의 성과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된 사람은 좋은 관리자가 아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자동차 생활 고민 마오

마이오토 있으니까

살 때는 최저 연1.65% 낮은 금리로
팔 때는 수수료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탈 때는 비서처럼 관리해주는
신한카드 MyAUTO
이제 마이오토 하나로 자동차생활 고민 끝!



세상 편한 자동차 생활 **신한카드 MyAUTO**

금리 혜택받고
내차 사기



수수료 없이
내차 팔기



알아서 챙겨주는
내차 관리



[MyAUTO 앱 설치]



[iOS]



[안드로이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myauto.shinhancard.com]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 상품금리는 전수율 연10%이상 조건입니다. *국산신차 할부대출 이자율: 최저 연1.65%~최고 연4.2% (12~60개월 기준) *계약 체결 전 상세한 안내는 상품설명서와 약관 참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2% ※연체이자율: 약정금리+최대 연3% 법정최고금리 (연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19-C2b-09491호(2019.10.25~2020.10.24)

Lead by **신한카드**

“کم업 2019,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에 큰 힘 될 것”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27일부터 DDP서

30개국 80곳 참여... 민관 협력 첫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우리나라 자본으로 세계 유니콘 육성... 교류의 장 역할”

김봉진, 이승건, 박재욱 등 내로라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27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국내 최초로 민간·정부가 협력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6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K-Startup Week ComeUp 2019(کم업 2019)’의 조직위원회는 이날 강남 한화 드림플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5월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이날 کم업2019의 컨셉트 및 프로그램 구성을 설명했다.

کم업 2019는 이달 27~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행사를 주최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의 스타트업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스타트업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위를 꾸렸다. 김봉진 배달의

민족 대표와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 실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정신아 카카오펀처스 대표 등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사의 컨셉트는 ‘스타트업을 통해 만나는 10년 후의 미래!’다. 8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연사 60여 명이 참여하는 강연과 패널 토크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8개 세션은 △모빌리티 △뷰티&패션 △핀테크 △푸드테크 등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동시에 아모레퍼시픽, BMW, 카카오, 미래에셋, 미국 스탠퍼드대학 등 국내외의 50개 기관 관계자들도 주요 연사로 참여한다. 세계 30개국 80개 스타트업 관계자 2만여 명이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K-Startup Week ComeUp 2019(کم업 2019)’ 조직위원회가 6일 서울 강남 한화 드림플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김봉진 조직위원장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행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자본이 세계 유니콘을 키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이 동남아의 유

니콘을 키우려면 일단 만나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کم업 2019가 그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정훈 조직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만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전 세계의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글로벌화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

로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کم업은 세계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핀란드의 ‘슬러시(Slursh)’를 표방한다. 2008년부터 열린 슬러시는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2만 명 이상이 몰려들고 있다. کم업은 슬러시와도 협업했다. 다만, 차 위원장은 “کم업이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협업의 강도는 강하지 않고, 슬러시에 참여한 팀들이 کم업에서도 함께하는 정도”라며 “올해 이후 매해 협업 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직위원회 실무위원장인 류중희 대표는 “글로벌 축제가 되기 위해 차별화에 집중했다”며 “8개 세션으로 나눠 뷰티, 핀테크, 핀테크로 골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구성은 글로벌 콘퍼런스 중 최초”라고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펀처스 대표는 “کم업을 생각하면 한국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도록 글로벌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모든 창업 행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원스토어 “3년 내 게임 점유율 30%로 확대”

키움인베스트먼트·SK증권
1000억 규모 신규 투자 유치
동남아·유럽 통신사와 연대
‘글로벌 앱마켓’ 도약 자신감
웹소설·웹툰 분야 본격 육성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1000억 원 투자 유치 소식과 함께 내년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원스토어

원스토어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내년 공격적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스토어는 6일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경쟁구도 형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원스토어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앱마켓 수수료를 20%로 낮추는 정책 변경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인 개발자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입점하며 게임 거래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의 결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수익성 개선도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번 투자를 결정한 투자사들은 원스토어의 이 같은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사 키움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이

참여한 이번 투자로 인해 원스토어 기존 주주인 SK텔레콤과 네이버가 각각 52%, 28%의 지분을, 신규투자자가 설립한 사모펀드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내년 원스토어는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잡고 초대형 게임 유치를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형 모바일 게임이 집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마케팅 지원, 전략적 투자, 통신사 역량 활용 공동 마케팅 등을 동원해 주요 게임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게임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포부다.

또 게임을 판매하는 다운로드 마켓이 아닌, 모바일 e스포츠 게임 영상 스트

리밍 서비스와 게임 굿즈 판매까지 유저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게임 유저들이 즐겨 찾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원스토어의 사업모델 확산을 위해 구글플레이와 경쟁 중인 다수의 해외사업자들과의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남아 및 유럽 지역의 유력 통신사들과 JV 설립을 포함한 제휴 방안을 협의 중이며, 자체 앱마켓을 운영 중인 단말 제조사들과의 제휴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게임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번 투자 유치로 퍼블리싱 강화, 플랫폼 제휴 등을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고 구독형 사업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지난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는 ‘상생’이라는 화두를, 원스토어에는 ‘성장’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이번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해 원스토어와 더불어 국내외 전체 앱 생태계가 발전하는 진정한 상생 플랫폼 ‘글로벌 원스토어’의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한상혁 “가짜뉴스 팩트체크 위해

〈방송위원장〉

민간기관 설립 적극 지원하겠다”

“방송·통신 규제 과감히 철폐”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팩트 체크(fact check : 사실 확인)를 하는 기관을 지원하거나 신규로 민간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가짜뉴스 혹은 오보에 대해서는 각 법규에 사후 규제책이 이미 존재하고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의 팩트 체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국내에는 관련 기관들이 출발 초기 단계이거나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진행된다면 재원 지원 등을 통해 그 기관들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재난방송에 미세먼지 관련 예보를 포함시킬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분명 국민의 건



강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재난방송의 범주에 미세먼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과 통신영역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의지도 언급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고 기존 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어졌고 때로는 과도하다”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규제의 틀’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중소 CP(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버젓이 남아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찾아내 시대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전 방통위의 방향을 과감히 바꿔 부처 간 협력해 부처 간 영역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양측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법 재개정 법안 발의에 맞춰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KT, 차기 회장 후보 37명 확정... 외부 30명·내부 7명

KT 지배구조위원회는 23일부터 2주간 공개모집 및 전문가 추천을 받아 사외 회장 후보군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5일 오후 6시까지 사외에서 총 21명의 후보자가 신청했으며, 복수의 전문가를 통해 9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후보자 명에 보호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4월부터 사내 회장 후보

자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7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외부 총 후보자는 무려 37명이다.

앞으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정관 및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내의 회장 후보자군을 심층 검토해 회장후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을 선정한다.

KT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을 심층 평가해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 후보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KT 이사회는 회장 후보자 중 1인을 회장 후보로 확정해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KT 차기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KT 지배구조위원회 측은 “최적의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회장 선임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훈 기자 yes@

엔씨 ‘리니지2M’ 27일 출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출시일이 27일로 확정됐다.

엔씨소프트는 6일 공식 홈페이지와 스페셜 영상 등을 통해 리니지2M의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 스페셜 영상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직접 참여해 게임을 소개한다.

회사 측은 리니지2M 출시와 관련한 이

벤트도 진행한다. ‘리니지2M 스페셜 영상 SNS 공유 이벤트’와 ‘1127 리뉴얼 이벤트’ 등을 통해 이벤트 참여자들은 구글 기프트 카드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용자들은 리니지2M 공식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자는 게임이 출시된 후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받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제약 빅5, 나란히 ‘1兆 클럽’ 카운트다운

선두 유한양행 올 1.5兆 전망
GC녹십자 3분기 누적 매출 1兆
7811억 종근당도 ‘진입 가시화’
한미·대웅은 작년 이어 ‘굳히기’

국내 매출 상위 제약사 5곳이 나란히 올해 연 매출 ‘1조 클럽’에 입성할 전망이다. 5개사가 일제히 1조 매출을 올리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대형사들의 외형 성장 노력이 국내 업계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이 2019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유한양행이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 시대를 연 지 5년 만에 상위 5개 기업(빅5)이 모두 1조 원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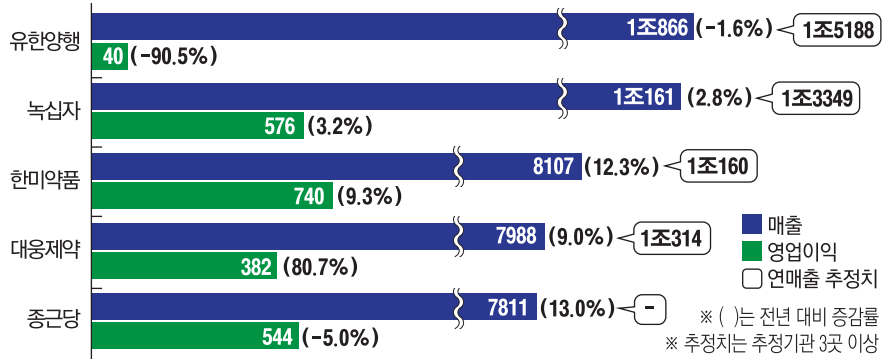
새롭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종근당이다. 종근당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7811억 원을 올리며 창립 이래 첫 1조 클럽 가입을 가시화했다.

종근당의 3분기 매출액은 280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9.4%나 늘었다. 빅5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자체 제품과 도입 상품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당뇨치료제 ‘자누비아’,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고지혈증치료제 ‘아토젯’ 등이 호실적을 이어갔고, 신규 도입한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의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4분기에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3분기 누적 매출액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유한양행과 함께 일찌감치 1조 클럽에 들어섰다.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은 36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고, 누적 매출액은 1조161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확보도 성공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66억 원, 당기순이익은 224억 원으

5대 제약사 2019년 3분기 누적 실적 (단위: 억 원) ※ 출처: 에프앤가이드



로 각각 30.6%, 41.7% 대폭 늘었다. 수익성이 높은 독감백신과 희소질환치료제 ‘헌터라제’ 등이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탄탄한 실적을 내며 각각 24.4%, 28.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미약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클럽에 안착할 예정이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657억 원, 영업이익은 249억 원으로 각각 12.9%, 16.0% 나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3개 분기 내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3분기 누적 매출 810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 확대는 자체 개발한 고지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패밀리(아모잘탄-아모잘탄플러스-아모잘탄큐)’의 성장이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수젯은 3분기 원외 처방 조제액 206억 원 매출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했다. 아모잘탄패밀리는 2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제넨텍의 신약 라이선스 계약금 분할인식이 4월 끝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자체 개발 제품들의 호실적으로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올리며 1조 클럽에 가입한 대웅제약은 자리 굳히기에 나선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9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다.

3분기 매출액은 ‘릭시아나’, ‘크레스토’ 등 전문의약품(ETC)과 ‘우루사’, ‘임팩타

민’ 등 일반의약품(OTC)의 고른 성장으로 4.5% 증가한 2425억 원을 기록했다.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의 본격적인 미국 수출이 이뤄지면서 8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수익성은 메디톡스와의 소송 비용 104억 원과 라니티딘 의약품의 잠정판매 중지 조치에 따른 ‘알비스’ 회수 비용 49억 원이 발생하면서 크게 부진했다. 영업이익은 65.2% 급감한 28억 원에 그쳤다. 비경상적 비용은 4분기에도 이어져 실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북미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나보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업계 1위 수성에 성공했지만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3분기 누적 매출액 1조866억 원으로 빅5 중 유일하게 소폭(-1.6%) 감소했다.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은 3823억 원, 영업이익은 33억 원으로 시장 추정치(컨센서스)를 밑돌았다. 주요 품목인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의 약가 인하 여파로 ETC 사업부 매출액이 4.4% 감소하는 등 매출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업이익은 베링거인겔하임(42억 원), 안센(18억 원), 길리어드(16억 원) 등 기술수출로 인식이 힘입어 적자를 면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플랫폼’ 확장하는 편의점 이번엔 PB에 광고 입혔다

편의점의파격적인유통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전국 곳곳에 뻗어 있는 점포를 이용한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전략이다. 택배 서비스와 ATM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광고 플랫폼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국내 최초로 ‘삼성증권 네이버페이투자 통장’ 제휴 상품을 PB(자체 상표)상품 용기면에 통해 광고한다고 6일 밝혔다. 4월 출시된 이후 200만 개를 팔며 흥행을 거둔 GS25의 PB ‘유어스인생라면’의 상품명을 ‘돈벌라면’으로 변경하고, 제휴 상품의 혜택 내용을 용기면에 디자인해 22만 개를 한정 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용기면의 내용물을 업그레이드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더했다. 기존 인생라면에는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 2종이 들어 있었지만, 돈벌라면에는 깊은 맛을 내는 스프 1종을 추가해 총 3종의 스프가 별첨됐다. 특히 스프 이름을 국내주식 건더기스프, 해외주식분말스프, 펀드별점스프로 정하고 ‘돈벌라면 분산투자하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담았다.

GS25는 이번 광고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온라인 광고를 제공받기로 했다. ‘돈벌라면’은 네이버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이 상품을 홍보하기로 했는데, 환산하면 대략 5억 원 정도다.

PB 제품에 타사의 광고를 넣은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이 같은 파격적인 실험은 삼성증권과 네이버페이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유통업체 중 소매 영향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GS25를 낙점하고 먼저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전국 1만3600여 개 점포를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에 적합



GS25 ‘돈벌라면’

GS25, PB상품 ‘인생라면’에 삼성證 광고 유치 ‘돈벌라면’ 택배·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 점포는 플랫폼으로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전국에만 총 4만여 개가 넘는 점포가 전국 어디에 없는 곳이 없다는 장점 덕분이다.

택배를 보내거나받는 것 모두를 편의점에서 할 수 있다. 스마일박스(무인 보관함)를 운영하는 GS25는 G마켓이나 옥션 등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3

월에는 1600원짜리 ‘반값택배’ 서비스를 론칭했다. 세븐일레븐은 페덱스와 손잡고 해외 서류 배송 서비스도 한다.

금융 서비스 역시 편의점들의 관심이 높은 플랫폼이다. 최근 점포 수 다이어트에 돌입한 은행의 빈자리를 메꾸며 집객효과를 노릴 수 있다. 1만1000여 개의 현금인출기(ATM)를 보유하고 있는 GS25의 ATM기 입출금 및 이체 거래 금액은 지난해에만 10조 원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CU 역시 NH투자증권 등과의 제휴를 통해 ATM 활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빌리티의 플랫폼 거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의 판매와 충전은 물론 전기차와 전기 킥보드 충전 설비까지 제공하고 있다. GS25는 9월부터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고고씽’과 손잡고 전동 킥보드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과 주차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고, CU도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와 손잡고 대학가, 원룸촌 등에 위치한 점포를 중심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한 점포를 거점으로 한 소매 유통 플랫폼 활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놀부·bhc·공차 이어 맘스터치까지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 사들이는 까닭은

저비용 인수 후 가치 높여 매각
유니슨캐피탈 ‘공차’ 6배 차익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이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했다.

놀부, bhc, 공차에 이어 토종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사모펀드에 팔리면 프랜차이즈 기업이 M&A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인수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업 구조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제조업의 경우 인수금액은 수조 원에 육박해 인수 후 경영 정상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 금액도 만만치 않다. 사모펀드의 목적인 ‘엑시트’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아시아 나항공의 매각 적정가는 2조 원에 달하지만 중소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대로 인수가 가능하다. 실제로 케이엘애포터너스가 인수한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매각대금은 2000억 원 선이다.

6일 프랜차이즈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에 따르면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한 식음료 프랜차이즈로 사모펀드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수와 보유자산에 따라 매각금액이 산정된다. 대다수 프랜차이즈 기업은 비상장사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후 재상장하거나 가맹점을 확대한 후 매각해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최근 유니슨캐피탈이 매각한 ‘공차’가 대표적이다. 유니슨캐피탈은 2014년 공차 한국사업부를 인수한 후 2017년 대만 본사까지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600억 원이었다. 유니슨캐피탈은 미

국계 사모펀드에 공차를 3500억 원에 매각하면서 6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둬들였다.

현재 사모펀드가 보유한 브랜드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들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선호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원조인 할리스커피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는 대표적인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도 사모펀드 TRG가 인수한 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3배가량 올라 기업가치를 높인 후 전문경영인인 박현중 회장과 TRG의 조형민 전무가 새롭게 설립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인수했다.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모펀드들의 프랜차이즈 인수합병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인수금액이 부담이 없고 가맹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리스크도 크지 않은 편”이라며 “매장수가 늘어나면 곧 기업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장수를 확대한 후 재매각으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장건강’ 챙기는 유산균 함유 초콜릿

해태제과 ‘젠스 프락토올리고당’

초콜릿에 기능성을 접목한 건강한 초콜릿이 나왔다.

해태제과는 장건강에 좋은 초콜릿 ‘젠스 프락토올리고당’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맛과 품질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더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접목한 제품이다.

프락토올리고당은 단맛은 설탕의 70% 수준이면서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감미료다. 일반 유산균과 달리 대부분의 성분이 장까지 도달해 ‘방탄유산균’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설탕보다 가격이 7배 이상 비싸 실제 프락토올리고당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품에는 하루 권장량에 해당하는 7000mg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다. 기능성 제품을 표방한 시중의 제품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장내 유익균은 100배가량 증가하며 비만을 유발하는 등의 유해균은



그에 비례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콜릿의 향미를 좌우하는 바닐라도 천연으로 대체했다. ‘천연 바닐라’는 은(銀)보다 고가일 정도로 일부 프리미엄 초콜릿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최고급 원료다. 기능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맛도 업그레이드해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초콜릿의 지평을 확대하고 설문을 통해 조사된 소비자의 바람을 담아낸 만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격오지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 실증사업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Ecosystem)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가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산업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 데이터, 의료영상·진단 데이터, 임상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라이프(생활) 데이터, 연구조사 데이터 등 측정, 분석, 연결, 통합하는 산업군이다.

급격한 고령사회와 삶의 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맞춤형 디지털헬스케어에 대

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TP는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 지원 사업에 R&D 프리프로덕션(기획단계 육성)과 혁신사업화 신속지원(즉각적인 사업화 지원)을 구성하고 약 10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춘천 및 원주 권역의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으로 추진돼 왔던 원격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먼저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가능하다.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사진제공 강원테크노파크

더불어 강원TP는 △휴레이포지티브 △유비플러스 △미소정보기술 △메주 등 의료기기업체 등을 영입해 다양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소정보기술은 원주 규제자유특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예측 실증사업’을 주관한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 방대한 의료빅데이터를 보유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도내 병원이 함께 참여한다. 미소정보기술은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의약품 안전사용(DUR)데이터를 활용(환자 개인정보는 제외), 백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메주는 환자가 파스처럼 몸에 붙여서 쓸 수 있는 패치형 심전계인 ‘하이카디(HiCardi)’ 개발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과정을 밟고 있다. 메주는 내년 2월 중 제품 허가가 완료되면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이전공공기관 연계사업 등 강원TP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한 단계 점프업 되는 기회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글로벌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oT·5G 접목 근육단련 기기 ‘EMS’ 대중화

엠투웬티

근감소증 예방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엠투웬티(M20)가 EMS(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MS는 우주공간에서 무중력 상태인 우주인이 근육운동에 활용했던 기기로, 엠투웬티는 2000~6000hz의 중주파 캐리어 주파수 기술을 이용해 피부 통증을 줄이고 저주파가 근육을 직접 자극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덕분에 고령 및 관절수술 환자 등도 엠투웬티의 EMS 장비로 근력 운동이 가능하다. 김진길 엠투웬티 대표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건강한 사람들도 관절 손상을 최소화하며 근육 운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등 중증 환자들도 근육 유지나 발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엠투웬티는 IoT(사물인터넷)를 접목한 신개념 머슬 트레이너(중주파 EMS) 장비 ‘마이 미러(My Mirror)’를 출시했다. 엠투웬티는 이 같은 IoT형 EMS 기기를 피트니스센터에 무료로 공급해 EMS운동 대중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마이미러는 체성분·체형 분석 및 각종 개인 건강 정보를 측정하는 장비를 추가해 일상 생활에서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1회에 8만 원 이상이었던 비용을 유럽과 비슷한 1회 2



엠투웬티는 EMS 장비를 필라테스에 접목한 새로운 운동을 공개했다. 사진제공 엠투웬티

만 원으로 책정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낮췄다.

김 대표는 “현대인의 근육량 유지와 관절 보호를 위해 EMS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IoT에 이어 내년에는 5G를 접목한 EMS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엠투웬티의 IoT형 EMS 기기는 EMS 중주파인 유럽 시장에 MOQ(최소주문량) 50억 원이 넘는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일본·호주·인도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출품해 미국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3차병원 수준 무릎관절·척추 특성화 센터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관절내시경이나 인공관절 수술 등 고난도 의료기술이 필요한 환자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대기하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 서비스 향상, 병원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해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들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개원가 최초로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R&D)에 나서면서 관절·척추 환자에게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은 대학병원 시스템인 무릎관절센터, 어깨상지관절센터, 척추센터, 족부센터 등 특성화 센터를 운영하며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관절염 말기 환자를 돕는 ‘3D 시뮬레이션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도구’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일반 병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돼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선도 의료기관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고난도 의료기술인 관절내시경 시술 능력을 인정받아 ‘국제 관절경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이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세사랑병원

스포츠 슬관절학회(ISAKOS)’로부터 관절경 수련기관(Teaching Center)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시술 및 수술 이후에는 환자의 기능 개선과 통증 완화를 돕는 비수술센터, 물리치료센터, 스포츠재활센터 등 전문 센터를 운영하며 증상의 진단부터 수술, 재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완치를 돕고 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관절·척추 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R&D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피부 탄력 되돌리는 간편 레이저 시술

알마레이저 ‘악센트프라임’

요즘 피부미용계에 떠오르는 미용 레이저 장비가 있다. 흔히 ‘툰페이스’, ‘툰바디’ 시술로 알려진 이스라엘 알마레이저사의 ‘악센트프라임’이다. 악센트프라임은 알마레이저가 10년 이상 연구·개발한 악센트 시리즈 차세대 최종 버전이다.

악센트프라임은 각각 용도·시술 부위가 다른 15종의 핸드피스를 연결해 시술한다. 국내 의사들은 다양한 핸드피스와 다른 시술을 조합해 자신만의 톤시술 방식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건대 리더스피부과의 이도영 원장은 고주파 핸드피스 톰페이스와 초음파 핸드피스 톰라이너를 조합한 ‘툰업’ 시술을 개발해 시술 중이다. 이 원장은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매끄러운 얼굴선, 두 가지를 한번에 개선할 수 있는 시술”이라며 “일찍 시작하면 노화의 시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샵업 및 VIP 시술로 유명한 MH클리닉 김지선 원장은 톰을 이용한 미세부위 시술을 추천했다. 김 원장은 “피부층이 얇은 눈가, 목, 이중턱 등 섬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관리가 가능해 많은 유명 VIP들에게 인기 시술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툰바디도 의사들 사이에선 화제다. 스킨영역원의 허수정 원장은 직접 톰바디 시술과 운동을 병행해 모



이도영 건대 리더스피부과 원장(왼쪽부터), 김지선 MH클리닉 원장, 허수정 스킨영역원 원장.

텔급 몸매를 만들기도 했다. 허 원장은 “툰바디 시술은 특허받은 40.68MHz 고주파를 이용해 몸 안에서 초당 4000만 번의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 원리”라며 “물을 많이 섭취하며 운동을 병행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알마레이저는 내년 1월 새로운 보디시술 ‘악센투에이트(accentuate)’를 한국에 공개한다. 악센투에이트는 핸드프리(hands-free) 시술로, 원하는 부위에 40분간 붙이고 있으면 시술이 끝나 간편하다. 관계자는 “한국 보디시술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단-치료-치유’ 암 극복 전 과정 통합관리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국내 최초로 임상 치료의 전(全) 분야인 양방·한방·치과 통합협진치료가 이뤄지는 곳이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이다.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암을 넘어선 삶(Life Beyond Cancer)’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전인 치료 시스템을 구비해 ‘치료’와 ‘치유’의 개념을 적용, 환자 중심 암병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암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암 극복을 위한 전(全) 과정을 중시하며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있다.

치료에는 경희의료원이 보유한 의대·한방·치과병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

항암제에 대한 반응과 부작용 등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밀의학연구소(NGS)를 통해 암 유전자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치과진료센터에서는 치료와 수술 계획이 나오기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해 발치를 최소화하고 구강 내 염증을 사전에 예방해 암 치료 효과를 높인다. 한의면역암센터는 한방치료를 통해 암환자의 면역력 강화와 합병증 최소화에 집중한다.

또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개인별 맞춤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재활이란 암을 진단 받은 후부터 생존까지 암에 의한, 또는 암 치료로 인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전경. 사진제공 경희의료원

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병원 1층에 위치한 첫방문센터는 암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전문적인 카운슬링은 물론, 상담 및 진료예약, 내원 전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환자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최소한의 이동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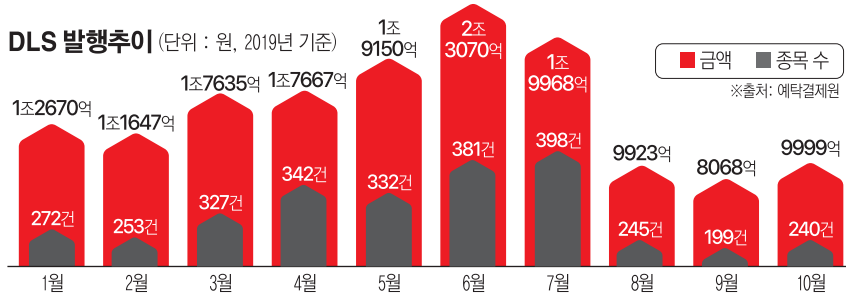
치유 프로그램은 암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건강한 생활, 보호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정상설 후마니타스암병원장은 “암과의 싸움에서 더 이상 홀로 외롭지 않게 돕는 것이 후마니타스의 정신”이라며 “진정한 환자 중심 암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상품〉
DLS 사태 후폭풍… 발행액 3개월 새 ‘반토막’

7월 1.9兆서 지난달 9999억
종목수 240건으로 40% 줄어
전문가 “시장 더 축소될 듯”

DLS(파생결합상품) 사태 여파로 발행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말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DLS 발행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독일 국채 10년물 DLS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7월 총 발행금액은 1조 9968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



소해 지난달 9999억 원으로 49.92% 줄었다. 발행 종목수는 398건에서 240건으로 39.69% 감소했다. DLS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활용한 파생결합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서 해외금리 연

계 파생결합상품이 큰 손실을 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DLS 상품의 경우 95%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DLS 사태가 투자심리를 악화시

키는 트리거로 작동했다”며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상품 발행도 크게 감소했다. 7월 DLS 상품 70개(4030억 원 규모)를 발행한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36개(1880억 원)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도 71건(3050억 원)에서 42건(1353억 원)으로, 신한금융투자도 45건(2595억 원)에서 30건(1032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

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호 KB증권 연구원은 “DLS 시장의 경우 금리, 신용, 원자재, 복합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10~15%가량 발행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 36.24% 정도 감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와 해외지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DLS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DLS 중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의 경우 아직까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향이 없어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서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삼성전자 ‘대장주’ 따라 그룹펀드 수익률 ‘쑥’
해외주식 거래 톱10 중 6개 ‘ETF’

한 달 새 190억 순유입세 전환
24개 펀드 평균 수익률 7.4%
코스피보다 1.4%P 높아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들쭉이 있다. 이에 삼성그룹 주식만 골라 담은 그룹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 중이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설정액 10억 원 이상 삼성그룹펀드 24개(상장지수펀드 포함)의 최근 한 달(10월 7일~11월 5일) 평균 수익률은 7.41%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98% 오른 것과 비교해 1.4% 포인트 앞선다. 삼성외 주식도 담는 기타그룹펀드(18개)의 평균 수익률(2.35%)과 비교하면 월등히 앞서는 수치다.

한국투자자산운용의 ‘KINDEX삼성그룹주SW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가 최근 한 달간 9.04% 수익률을 보였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삼성그룹주

삼성그룹주 한달 주가 추이

구분	10월 7일	11월 5일	상승률
삼성전자	47750원	52700원	10.37%
삼성바이오로직스	326000원	399500원	22.55%
삼성물산	89000원	103500원	16.29%
삼성SDI	219500원	235000원	7.06%
삼성SDS	191500원	202000원	5.48%
삼성생명	70500원	72800원	3.26%
삼성화재	215500원	227500원	5.57%
삼성전기	106500원	115000원	7.98%
삼성그룹펀드(24개)			7.41%

※출처: 한국거래소 및 에프앤가이드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가 7.98%,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가 7.80% 수익률로 호성적을 거뒀다. 투자금도 몰리고 있다. 현재 전체 설정액이 1조 5942억 원인 삼성그룹펀드는 올해 들어 1767억 원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최근 한 달간 190억 원이 들어오며 순유입세로 전환했다. 삼성그룹펀드의 호조세는 포트폴리오에 담긴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결과다. 삼성그룹펀드는 대체로 25% 내외

비중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한 달간 10.37% 오르면서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22.55%), 삼성물산(16.29%), 삼성SDI(7.06%), 삼성SDS(5.48%) 등도 주가가 오르며 펀드 수익성을 개선했다. 펀드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KINDEX삼성그룹주SW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은 삼성전자(25.54%), 삼성SDI(15.59%), 삼성바이오로직스(11.98%), 삼성물산(9.07%) 순으로 펀드 내 보유 비중이 높다. 특히 주가가 크게 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중을 12% 가까이 조정해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반도체 수출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상반기 실적에 부진했고 주가도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9월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 10월 들어서는 시장 기대치를 웃돈 3분기 실적과 미·중 무역분쟁 완화 등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인덱스·테마’ 찾아 직접 투자
6개월간 2조 5740억원 결제

해외주식 ‘직구(직접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테마·전략을 취하는 상품 구매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이 결제된 해외주식 종목 10개 중 6개가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은 총 22억 2370만 달러(2조 5760억 원)로 전체 41억 1786만 달러 중 54%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해외주식 결제 상위종목 10개 중 단 2개만이 ETF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결제금액 비중도 작년 9억 4333만 달러(1조 921억 원)로 전체의 21.29%를 차지했던 데서 두 배 넘게 뛰었다. 해외자산에 대한 관심과 인덱스(지수)

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합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권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자금 흐름을 보면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ETF의 경우 다양한 종목을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매매했 수 있던 점에서 유동성 높은 상품을 투자자들이 먼저 찾는 추세”라고 짚었다. 또 김수정 SK증권 연구원은 “요세 ETF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ETF 패시브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펀드 포트폴리오에 해외 ETF를 포함하는 등 해외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올해 결제금액이 가장 많았던 ETF는 홍콩 ‘CHINA AMC CSI 300 INDEX ETF’로 6억 4329만 달러(15.62%) 거래됐다. 중국 CSI300 지수를 추종하는 해당 ETF는 지난해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변동성시주·채권 등 다양한 기초지수를 따르는 ETF를 찾는 투자자가 늘었다. 이다원 기자 leedw@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무역관리, 구매·재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영업관리, 구매·재관리,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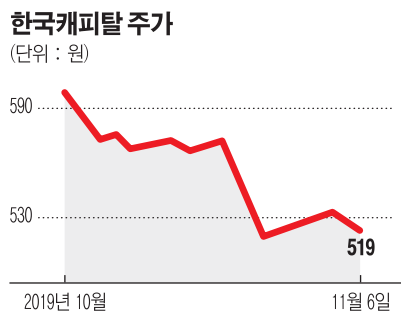
한국캐피탈 ‘유증’ 소식에 주가 ‘뚝뚝’

“재무 건전성·수익 개선 주력”
발행가액 ‘500원’으로 확정
주가 522원까지 떨어져

한국캐피탈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급락했다. 이번 증자로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 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캐피탈은 전날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500원으로 확정했다. 최초 발행 예정가다. 현재 주가에서 할인율 20%를 적용했을 때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하락해 액면가를 가액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상증자 결정을 처음 공시한 날은 9월 10일, 이날 주가는 전일(671원)보다 9.84% 급락한 60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후 발행가액이 확정된 5일에는 522원까지 내렸다.



현 주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금액은 737억 원(1억 4740만 주)으로 종가 기준 시가총액 886억 원 대비 83% 수준이다. 주식 수로 비교해도 현재 총 주식 수(1억 6820만 9576)의 87%에 달한다.

싼 가격에 대규모로 나온 주식을 일반투자자가 많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상증자는 구주주 공모 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79.60%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군인공제회는 구주주 청약에만 참여하

고 초과청약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캐피탈은 과거 리스에 집중했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올 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109억 원) 대비 36% 증가했다.

이번 증자가 마무리되면 수익성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자기자본 규모 확대가 영업 확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모집한 자금 중 600억 원은 지난해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쓰일 예정으로, 연간 36억 원 수준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한국캐피탈 관계자는 “회사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도 과거와 같이 고배당 성향을 이어나갈 계획이고 실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주까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KSS해운, 올해 대선계약금 5000억 돌파

단기 계약 더하면 6000억 훌쩍
재무지표 호전에 유보율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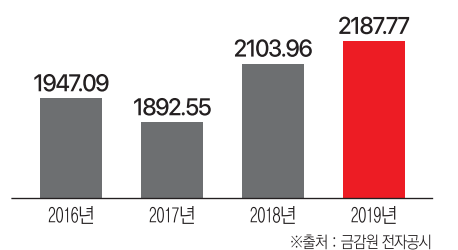
KSS해운이 이달 들어 장기 대선계약금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유보율도 2000%대를 넘어서면서 자금력이 과거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SS해운은 11월 기준 올해 총 4번의 장기 대선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터키 BGN INT DMCC와 1136억 원 규모의 장기 대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까지 계약 합산액만 5049억 952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2.5배 수준으로, 이밖에 LPG운송 및 단기 대선계약 등까지 더하면 6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의 경우 81억 원 규모의 LPG 운송계약 외엔 이렇다 할 공시된 계약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체결해 온 장기 계약들로 대선수익은 나날이 늘었다.

2016년 656억 원이던 대선수익은 지난해 1101억 원으로 2년 새 67.94% 증가했다. 대선수익이 1000억 원대를 넘어선 덕에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6.47%에서 54.39%로 늘어났다.

KSS해운 유보율 추이
(단위 : %)



늘어나는 수익 속에 재무지표는 2017년을 기점으로 호전되는 중이다.

2017년 당시 300%에 가까웠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261.93%에 이어 올 상반기 기준 254.96%까지 떨어졌다.

무엇보다 유보율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유보율은 2016~2017년 연속 2000%선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해 2103.96%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2187.77%까지 상승하고 있다.

유보율은 자본·이익잉여금 대비 납입자본금을 나타내는 지표로, 회사 자금력이 시장 불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평가할 때 활용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업황이 부진했던 해운업계엔 터라 유보율 회복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상네트웍스 ‘부동산 수익’ 본업보다 낮네

옛사옥 매각 시 차액 86억 전망
DMC 타워 임대 수입도 ‘썩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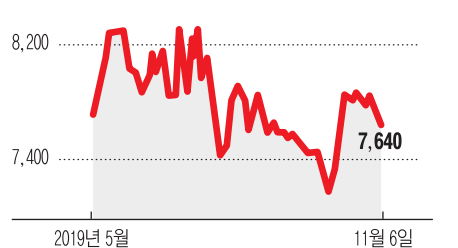
코스닥 상장사 이상네트웍스가 부동산 투자로 한 해 영업이익을 웃도는 가외수입을 거둘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상네트웍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열현산에 211억 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현금 유동성 확보와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네트웍스가 이번에 매각하는 부동산은 앞서 2009년 10월 사업 영역 확대와 업무시설 확보를 위한 사옥 매입을 목적으로 인수한 곳이다. 당시 매입 대금으로 113억 원을 지급했다.

이상네트웍스는 또 작년 8월 드래곤플레이로부터 서울시 마포구 소재 드래곤플레이 DMC 타워 토지와 건물 일체를 435억 원에 사들였다. 사옥 확보와 임대수익 내리는 목적에서다.

신규 사옥을 마련하면서 가산동의 옛 사옥은 쓰임새가 다 됐고 내부적으로는 매각에 나서기로 결정. 지난해 매각 예정자산으로 계정을 옹했다.

이상네트웍스 주가
(단위 : 원)



장부가를 기준으로 가산동 사옥은 125억 원가량이라서 이번 매각에 따른 차액은 86억여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네트웍스의 최근 3년 내 영업이익이 60억~80억 원대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투자로 한 해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훌쩍 넘는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작년 매입한 드래곤플레이 DMC 타워를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이상네트웍스의 알짜 수익원이 되고 있다.

이상네트웍스의 사업 영역 중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사업에서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6억여 원의 매출에 4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84억여 원의 매출에 3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철강사업 부문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더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m@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PART1.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PART2. 차의 진실 - 산야초 전문가 전문회와 다담(茶談)하다
PART3. 맞춤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PART4. 계절별 한방차 - 내 몸이 茶茶 좋아지는 건강 한 모금
PART5. 팅팡 체험 1박 2일 - "명주와 다배(茶조)할까요?"
PART6. 힐링 찻집 순례 -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낸 명소 5곳5색

BRABO 마이 라이프

it's time for tea

선라보가 만난 사람들

“김현식이 그 그림 11월에는 방황하지 않아 편안해요”
앤드그라운드와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영인호’

전통과 현대를 뒤흔친 창작으로
운명적 예술세계를 수놓다
실그림 마티스트 손인숙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배우머리 김병조

귀촌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매직한 사실 하나 귀촌하고 그의 귀농 이야기를 시작해왔다. 귀농 7년 차 농사도 실패도 어떤 자리 잡힐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문희) 씨는 아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나 깨나 진실을 좇리는 것 같다. 화살을 쏘았으나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다.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무수사례’로 치지만, 사실은 실패 사례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더불어 숲

호수를 담은 마음으로
언지 못할 사랑이 있더라

티박타빅 산책 창리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창리언덕으로 가는 길에 가곡 ‘동무생각’을 흥얼거렸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창리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천나리꽃 향내 맡으며...’ 어릴 적 배운 노래인데도 노랫말이 또렷이 떠올랐다. 우리나라 근대 문경을 묘사한 벽화 골목을 지나자 아늑한 언덕이 나타났다. 창리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다웠다.

시니어 밥상

홈바드 사찰음식+알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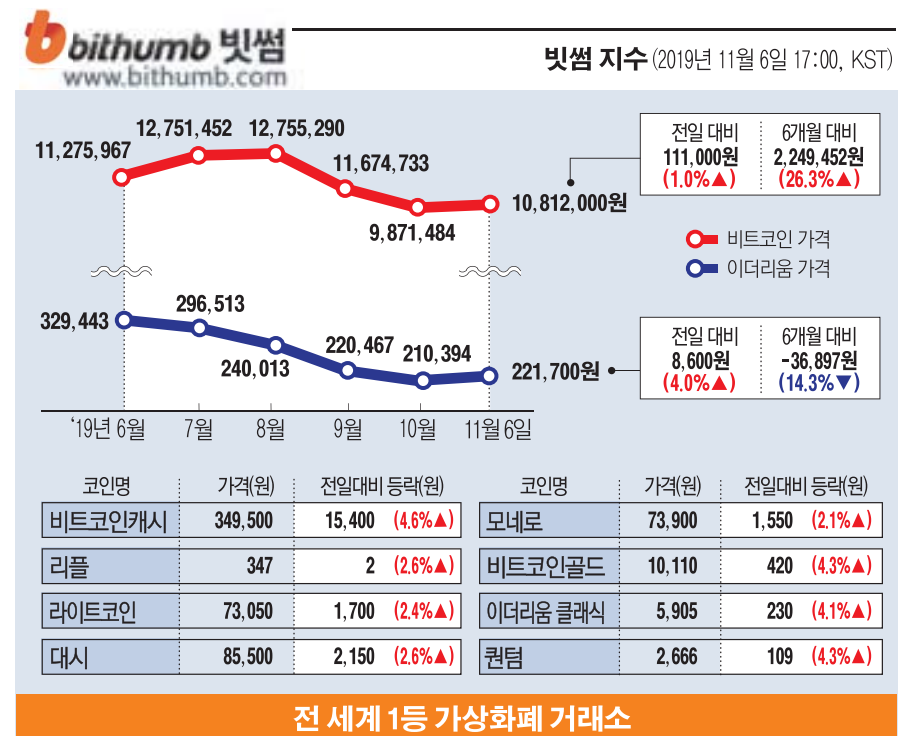
상속과 증여 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가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고고가게

자하청로 떠나는 오래된 찻집, 이촌하야 고고가게를 지난 5개월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15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던 그곳들을 다시 한 번 호명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정을 총망라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들과 식재료를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해왔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1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부산·고양·남양주 규제 풀리자…중개업소 “문의 빗발”

청약조정대상 해제 지역, 숨통 트이나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 반면, 침체에 빠진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에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8일을 기점으로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집값이 꺾이면서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 곳들이다.

이번 조치로 부산은 전역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앞서 부산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8월 기장군을 시작으로 부산진·남·연제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해제가 필요하다는 부산지역의 요청이 적지 않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산 전역을 조정대상지

역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 커 전문가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 전매제한 완화 등 청약수요 늘 것” 일부 해제 고양·남양주 효과 제한적

역에서 풀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의 최근 1년간 주택 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2.44%, -1.10%, -3.51%로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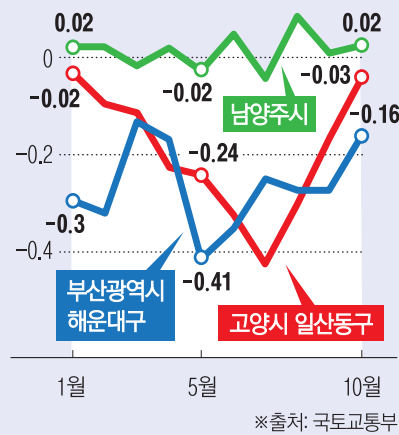
고양시도 최근 1년간 주택 가격 누적 변동률이 -0.96%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규제에서 벗어났다. 다만 삼성·지축·향동·원흥·덕은지구, 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남양주시 역시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별내신도시)가 위치한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규제지역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간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기간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	
대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	
시행지	서울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일부), 남양주시(일부), 하남시(일부), 동탄2택지개발지구주,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해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단일 서울(50%) 적용,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등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및 부산 주택 가격 변동률 (단위: %, 올해 기준)



일반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든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시장은 벌써부터 영향을 받는 모습이 다. 부산 해운대구 T공인 관계자는 “집값

이 극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집값이 전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매입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주택 거래를 막아 온 규제가 사라진 만큼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1순위 요건 완화와 해당점 제한 및 전매 제한 완화로 청약 수요가 늘면서 침체한 분양시장도 활기를 띌 가능성

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수혜를 보기 힘들 것 이란 지적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가 없어지는 만큼 분양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며 “특히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어서 청약시장이 총선 전에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사무실에서 바라본 재건축 사업장 모습.

서울시·서초구 ‘일반분양 통매각’ 제동 신반포3차 재건축 ‘사면초가’

소송 진행 땀 재건축 지연 우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 중인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 계획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신반포3차·경남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위한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신반포3차·경남 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3.3㎡당 6000만 원에 통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분양 방법을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 후 분양’으로 택했다면 재건축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각각 논리를 펼쳐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비업체는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승산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통매각 계획을 한 번 반려한 상황에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뿐더러 재건축사업은 결국 인허가 절차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조합이 서울시, 서초구의 일반분양 통매각 반려 결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조합에 득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적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건축 절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나마 일반분양 통매각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소송에서 진다면 결국 일반분양을 택해야 한다. 시간만 허비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소송까지 간 사업지에 지자체가 재건축 절차 승인을 빠르게 해줄 리 없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은 인허가 승인이 안 나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조합으로서는 인허가받을 게 많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재건축 절차상 승인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분양 통매각은) 없던 것으로 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 넘기기로 한 것은 일반분양보다 가격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늘 밤 무대에 설 오페라 주인공이 사라졌다?!

대학로 자유극장
2019.10.25 - 12.31

테너를 빌려줘

‘희망두배 청년통장’ 집 얻는 데 썼다

만기 후 사용 용도 62% ‘주거’
학자금 상환 등 ‘교육’ 뒤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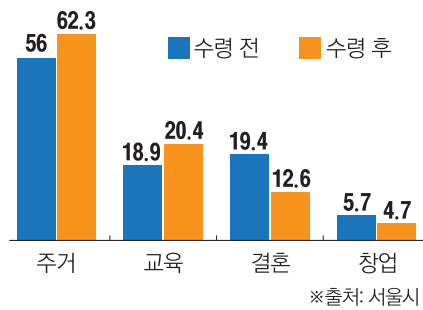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만기 후 사용 용도 1위는 주거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기수령 청년들의 사용용도 중 ‘주거’가 62.3%로 가장 많았다.

학자금 대출상환, 등록금 납입, 학원수강 등 ‘교육’ 용도가 20.4%로 뒤를 이었다. ‘결혼’ 12.6%, ‘창업’ 4.7% 순으로 조사됐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 참가자들이 월 10만·15만원씩 저축(2·3년 중 선택)하면, 서울시가 적립금 100%를 매칭 지원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만기수령 청년들이 적립금을 주거환경개선, 주택청약 등

청년통장 적립금 사용 용도 (단위: %)



‘주거’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한 가운데, 이 중 58.7%가 최근 3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청년의 71.2%는 최근 3년간 주거환경 개선에 변화가 없거나 악화됐다고 답해 청년통장 적립금이 실제 청년들의 주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고 응답한 청년의 90.9%와 창업 용도로 사용했거나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80%가 ‘적립금 덕분에’ 가능했다고 응답했다. 결혼자

금 용도로 답한 청년의 44.7%도 자금 마련에 도움됐다고 했다.

향후 삶의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 일반청년의 3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통장 졸업자(60.0%)가 일반청년(37.8%)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청년통장 졸업자 94.9%, 일반청년 90.3%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통장 졸업자 77%는 저축을 하고 있고, 저축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 저축습관 형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며 “앞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깊어가는 가을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시민들이 6일 오후 떨어진 은행잎을 하늘 높이 날리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뉴시스

‘200억대 법인세 환급 사기’ 롯데 前 임원들 2심도 무죄

재판부 “조세포탈 증거 없어”
뇌물받은 허수영 사장은 집유

허수영(66)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존(71) 전 롯데물산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세금 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롯데케미칼의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여행 비용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면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512억 원의 허위 회계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내 2008년에 200억 원대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는)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나 합병·분할·매각 과정에 관여

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유형자산 감액손실액 1512억 원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발전기 연료로 쓰이는 석유제품 부산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허 전 사장은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무역중개 업체로부터 롯데케미칼의 수출입 중개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해외여행 비용 등으로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적극적으로 뇌물교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업체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권용원(사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6일 “권 회장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 중이다. 다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권 회장이 이날 오전에 돌아가셨다”며 “사인은 경찰 조사 결과와 나뉘어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현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권 회장은 금융투자협회 직원과 나눈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檢, 조국 계좌 추적… 증거 수집 속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을 앞두고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증거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은 수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전날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09년과 2013년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중

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의 혐의를 주로 다루던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어 직접 수사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일가를 둘러싼 옹호학원,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치과계의 적폐를 파헤치는
치과의사 K의 외로운 전쟁



본격 치과 담합 리얼 스릴러

임플란트 전쟁



[본문 내용 중...]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진 얼굴을 한 강마른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그는 늦게 들어온 광욱을 잠깐 쳐다봤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환자들이 보기에 가격이 싸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도 전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원 건 취소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인사했다.

고광욱 지음

5·18 피해자 아픔 그려 보편적 연극 서사 벗어나 몸과 오브제로 무대 채워

“당신은, 나와 같은 인간인 당신은 나에
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가 한강
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창비)가 연극
으로 무대에 오른다. 6일부터 17일까지 서
울 중구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하는 연극
‘휴먼 푸가’(연출 배요섭)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서 싸운 이들과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그린 작품으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
상을 받았다. 국내 무대화는 이번이 처음
이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는 올해
의 마지막 시즌 프로그램으로 ‘공연창작집
단 뛰다’와 작품을 공동 제작했다.

원작 소설은 하나의 사건이 낳은 고통이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해 변주되고 반복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클래식 형식 중
하나로 독립된 멜로디들이 반복되고 교차
하며 증폭되는 푸가(fuga)와 맞닿아 있
다. 연출가 배요섭은 “이미 소설로 충분히
작품을 연극으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고통
을 기억하고 각인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과
정”이라고 밝혔다.

연기도 노래도 없다 몸짓으로 푼 ‘광주’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가 연극 ‘휴먼 푸가’로 무대에



5일 서울 중구 남산예술센터에서 시연한 ‘휴먼 푸가’의 한 장면.

사진제공 남산예술센터

연극은 소설 속 언어를 무대로 옮기지
만, 국가가 행사한 폭력으로 죽은 자와 살
아남은 자의 증언을 단순히 재현하지 않는
다. 배우들은 연기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연극의 서사에

서 벗어난 작품으로 관객이 인물의 기억과
증언을 단편적으로 따라간다. 슬픔·분노
·연민의 감정을 말로 뱉지 않으면서 고통
의 본질에 다가가 인간의 참혹함에서 존엄
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지를 시도한다.

위화, 모옌과 함께 중국의 3대 거장으
로 평가받는 문제적 작가 엔렌커<사진>
가 한국 독자들과 만난다.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은 한국 독
자와 세계 작가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세계작가와의 대화’를 신설했다. 첫 작
가로 중국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작가이
자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엔렌커
를 초청했다.

엔렌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에서 개최
되는 교보인문학석강에서 강연한다. 주
제는 ‘침묵과 한숨-내가 경험한 중국과
문학’이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中 문제적 작가’ 엔렌커, 한국 독자 만난다

‘내가 경험한 중국과 문학’ 주제로 12일 교보인문학석강 강연

의 삶에 대한 진중한 고백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엔렌커는 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뒤안길에 드리워진 어두운 면을 과감히
파헤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
엄성을 지향하는 작품들로 중국에서 가
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며 노벨문학상 후
보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그는 위화, 모옌과 더불어 중국의 3대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 2회 루쉰
문학상, 3회 라오서문학상, 2014년 카
프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는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된 ‘인민을 위
해 복무하라’, ‘사서’ 등이 있다.

중국이 숨기고 싶어 하는 어두운 부분
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엔렌커의 작품은
출간 이후 수많은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
으켰다. 총 여덟 권의 책이 중국에서 금서



로 지정됐다. 압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20
여 개국에 그의 작품
이 번역 출간됐으며
대중과 평단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강연회는 350석
규모로 매회 무료 참가로 진행된다. 안
내 및 참가 신청은 인터넷교보문고 문화
행사 페이지 또는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
감되며, 여유 좌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현장 신청도 접수한다.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유튜브 시대 동영상
마케팅 바이블
존 모앗 지음/ 전원
미역음/ 유엑스리뷰
퍼냄/ 2만9000원

“유튜버가 꿈”이라
고 말하는 초등학교
을 보는 건 더이상
놀랍지 않다.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는 자신의 브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됐다.

광고와 마케팅의 패러다임은 지난 50여
년 동안 쌓아온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엄
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대형 브랜
드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힘입어 ‘동영
상 우선’의 법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세계
로 돌입하고 있다. 동영상은 마케팅과 세
일즈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며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5년 경력의 BBC PD 출신으로 영국
최고의 동영상 마케팅 전략가로 언급되는
저자는 책 한 권으로 소셜 미디어 영상 콘
텐츠 기획과 동영상 마케팅 관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워런 버핏 투자의 역
사

에페이 루 지음/ 백
승우 역음/ 한스미디어 퍼냄/ 2만2000원

#1968~1990년
워런 버핏은 투자 파
트너십을 정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그의 새로운 투자 수단
으로 활용했다. 비공개 기업에 점점 더 많
이 투자했고, 보험과 지방은행, 그리고 네
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시즈 캔디즈같이
지배주주 지위를 확보한 기업을 통해 자신
의 자산 기반을 구축했다. (‘2부 기업의 본
질적 가치를 발견하다’ 중)

워런 버핏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
의 모든 투자에 성공하며 진화해왔다. 이
진화 과정을 제대로 파헤쳐 본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책은 버핏이 지난 60년 동
안 투자한 20개 기업 사례를 분석한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비아츠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
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은 토픽성격을 이룬다. 하지만 사
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편안하지 않다. 섣배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
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과 다르다. 선배들
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
는 대충과 맞고 실용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
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
작되었으며, (주)Q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
이자,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
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
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
에서 출간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림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책을 읽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
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
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
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같이 읽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
게 한다.

이정호 지음 / 232쪽 / 예문당 / 21,500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 국내에서 쌓은 포인트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을까?
- ☒ 해외에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싶다

손님의 기대 하나 하나를 모아 더 세계적인 금융을 만듭니다

손님의 무대가 넓어진 만큼 금융의 능력도 커져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세계적인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



해외에서도 휴대폰 터치만으로 결제하는
해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재밋는 지수 개발로 시장 활성화…수익은 덤”

증권사 첫 지수 개발 추진…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

일정 수익 보장하는 우상향 인덱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
“파생상품 문제 생기면 시장 전체 규제…과잉보호가 문제”

“투자자들을 지나치게 아이 취급한다. ‘손해를 보면 안 돼’ 식으로 접근한다. 파생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를 규제하는 식이다. 이런 과잉 보호가 산업을 위축시키고 망친다.”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난 최창규<사진> 연구원은 리서치센터 파생상품시장 경력만 15년이다. 파생 전문가인 그는 이제 지수(인덱스) 개발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인덱스사업 TF을 구성해 팀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 한 달째다. 증권사가 지수 개발에 나서는 것은 최초다.

그는 지수 개발업에 뛰어든 이유로 “주식은 부진을 겪고 파생은 규제로 위축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데 현재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며 “돈은 살아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수가 없으면 다양한 ETF(상장지수펀드)가 못 나오고 투자자도 다양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패시브 상품을 만들면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해외의 경우 ESG지수를 비롯해 크린워터(Clean Water)지수, 드론지수, 4차산업지수 등 다양한 테마지수들이 있는데 재밋는 상품들을 벤치마크하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규 연구원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지수 개발은 내년 상반기 첫 지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는 우상향 인덱스 개발이 목표”라며 “우선 리츠지수로 시작할 예



정인데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또 “위험 요소 등을 완화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규제를 꼽았다. 최 연구원

은 “자본시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당 상품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 없이 늘 규제부터 해왔다”며 “DLS, ELS도 3분기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는데 무조건 규제해결하려고 하니 성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연구원은 “투자는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고 미국 등 해외 선진 파생시장도 이런 구조로 돼 있다”며 “당국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걸 접근하기보다는 수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생겼다고 사모펀드 자체를 금지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해외 시장의 경우 재밋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몇 개 없다”며 “우리 실정에 맞게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실버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등의 테마를 발굴하고 지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방준혁 의장, EY 기업가 마스터상

넷마블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주최한 ‘제 13회 EY 최우수 기업가상’에서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최고 영예의 마스터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마스터상을 수상한 방준혁 의장은 2020년 6월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리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 한국 대표 기업가로 참가한다. 전 세계 약 50개 국가, 145여 개 도시에서 선정된 최고의 기업가들과 세계 최고 기업가상을 놓고 경합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김기병 4·19 기념사업회장 추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회장이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롯데관광개발은 김 회장이 최근 4·19 민주혁명회, 희생자유족회, 공로자회 등 3개 공법단체로부터 4·19혁명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추대받아 향후 기념사업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고 6일 밝혔다. 김 회장은 4·19혁명 당시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장과 전국대학생질서수습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선봉에서 활약했으며, 1963년 건국포장을 받기도 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만도, 신사업 전문 오창훈 박사 영입

만도가 신사업개발 전문가 오창훈 박사를 6일 영입했다. 부사장으로서 임명된 오창훈 박사는 운곡(WG) 캠퍼스 총괄 리더로 활동한다.

오창훈 선임 부사장은 서울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스틴의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반도체 광학소자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HP(휴렛팩커드), LG이노텍을 거쳐 필립스 북미 CTO로 근무하고, LG전자에서 스마트 솔루션사업, 에너지솔루션사업 등의 B2B 솔루션 신사업을 추진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락앤락, 김용성 중국법인장 선임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중국사업총괄에 전 해외사업부문장 김용성 전무(법인장)를 6일 선임했다.

신임 김 법인장은 1987년 LG전자에 입사해 27년 가까이 해외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했다. 2010년 LG전자중국법인 북경 법인장을 거쳐 2013년 LG전자 UHD·OLED TV 해외 영업 담당 임원을 역임했다. 이후 코웨이 해외사업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락앤락 해외사업본부 총괄로 합류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동화약품, 이대희 개발실 전무 영입

동화약품은 이대희 전무를 개발실 담당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 보건학 석사 및 경영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연세대 예방의학 교실 전공의로 근무했으며 한독·아벤티스 보건경제실장, 한독약품 개발실 이사, 한국안선 개발 이사, 한국 BMS 제약 의학부 상무, 한국베리거인켄하임 의학부 전무를 역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에너지 전환 시대, 원자력이 기저전원 돼야”

동아시아 원자력 포럼 개최식서 “신재생에너지와 공존” 강조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이 6일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원자력이 기저전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제7회 동아시아 원자력 포럼’ 개최식에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통해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와의 공존 시대를 이룩해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대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동아시아 원자력 포럼을 매년 개최해 왔

다. 2020년 제8회 포럼은 일본에서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중국핵능협업협회(CNEA), 대만핵능산업협회(TNA) 등 각국 협회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KHNP), 국가전력투자공사(SPIC), 도쿄전력(TEPCO), 대만전력공사(TPC) 등 동아시아 원자력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사장은 동아시아포럼이 전 세계와 함께 하는 보다 큰 원자력 민간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4개국 이외 더 많은 국가가 이 포럼에 참여할 것을 제의했다. 특히 정 사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쑹팅크어(聶廷克) 중국 CNEA 부회장과 원자



력 안전성 등 현안을 공유했다. 정 사장은 202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원전운 영안전성국제컨퍼런스’와 ‘원전산업박람회’에 국내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해 원전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개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사장은 포럼에 앞선 5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35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한일 양국 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방사능 비상 대응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면천두견주’ 김현길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날(1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두견주의 김현길<사진> 대표를 선정했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 가향주인 두견주 제조를 계승하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3차) 만찬주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전통주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전문 주조시설을 구축하고 두견주 전수교육관을 보유해 체계적인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두견주 제조 특허를 획득, 2007년 문화재청으로부터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 술 품질인증도 획득했다.

또 김 대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두견주



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 다변화, 도시민의 체험 방문 등을 통한 지역 농가 소득창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두견주의 오래된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홍보하고 ‘아시아와인트로피 우수한 전통주(2014년)’, ‘충청남도 술 탑 10’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통해 온라인 판매 및 백화점, 전통주 판매장에 유통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홍용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1월 수상자로 홍용택<사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홍 교수는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신축성 기판을 인쇄 공정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손꼽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홍 교수는 “후속연구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과 웨어러블 산업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인사

◆동화약품 ◇전무 △개발실 이대희
◆경기방송 ◇송진 △보도·제작 보도팀장 오인환 ◇전보 △경영지원국 국장 직무대행(부국장) 이준호 △보도·제작국 국장 직무대행(부국장) 안자영 △경영지원국 경영전략부 부장 방현숙 △보도·제작국 보도·제작부 부장 정대석 △경영지원국 경영전략기획부 경영지원팀 팀장 김동환 △보도·제작국 편성제작팀 팀장 김현아 △보도·제작국 경기북부취재팀 팀장 김진규 △보

도·제작국 경기북부취재팀 차장 최일 △보도·제작국 경기북부취재팀 차장 문영호

◆세계비즈니스스포츠월드 △본부장 김선교 △콘텐츠총괄국장 강용모 △경제국장 겸 경제부장 송광섭 △스포츠국장 겸 연예문화부장 류근원 △광고국장 노경백 △문화사업부장 정호원 △편집부장 고육석 △산업부장 배진환 △스포츠부장 권기범 △사진팀장 김용학 △경영지원팀장 정익교 △문화사업국 기획위원 오홍근 △스포츠국 게임전문기자 김수길(부장대우) △경제부 부장 임정빈 △편집부 부장대우 강민영

부음

▲류재홍 씨 별세, 류한선(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씨 부친상, 송희원(SC제일은행 팀장) 씨 시부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40분, 02-3010-2291

▲전수덕 씨 별세, 전광열(MBN 보도국 차장)·지연(포스코 인재창조원 과장) 씨 부친상, 김예은 씨 시부상 = 5일, 서울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2-2030-4444

▲김기원(전 국제문화협회 사무총장) 씨 별세, 이순자 씨 남편상, 김성종(전 삼성농구단장)·희종·우중(현대자동차마주법인부장) 씨 부친상, 이승규(삼성전자 부장) 씨 장인상 = 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3410-6920

▲이수일 씨 별세, 이영익·인숙·망남·은주 씨 부친상, 김병채(포이닉스 대표이사)·박영우(전 대덕전자상무)·손진오(대양엔지니어링 이사) 씨 장인상 = 5일, 고양시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10시, 031-810-5479

자본시장 속으로



김 호 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이론적으로 최선과 최악을 상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차선’과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도 많다. 부분과 전체의 괴리도 있다. 하나의 팩트를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느냐, 그로 인한 총체적 현실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단편적으로는 분명 사실이지만 전체 관점에서는 진실이 아닌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실무들을 다루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생생하게 경험한다. 각양각색으로 법과 도덕의 경계, 이론과 현실이 충돌, 우선순위의 문제, 법령 간 균열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에 종종 휩싸이기도 한다.

황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4년의 확정 판결받았던 한 오너는 옥살이 도중 ‘특별 사면’을 얻어 사내이사 후보가 됐다. 일부 주주는 기업에 손해를 끼친 범법자의 취업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사면 이외 ‘특별복권’도 받아 동법 제14조의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었다. 우리 연구소는 현실적 불가피성을 감안해 이에 찬성했다. 이후 채용 확대,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퇴직금 지급률 축소와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오너의 복귀로 창출될 금전적 가치가 훨씬 크다면 해당 기업과 재무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단, ‘절제한 재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제된다면 말이다. 게다가 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공개적인 책임 아래 떳떳하게 경영하는 것이 낫다. 흔히 이론적으로 최선과 최악을 상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차선’과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도 많다는 의미다.

부분과 전체의 괴리도 있다. 하나의 팩트를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느냐, 그로 인한 총체적 현실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다. 쉬운 예로, 새롭게 출시한 ‘H버터칩’이나 ‘GX면’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한다면? 신제품의 매출이 아무리 급증한다고 해도 전체 매출상 비중이 낮거나 반짝 뜬 것에 불과하다면 주가는 인가만큼 반등하기 어렵다. 전체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미미한 ‘부분적 사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 회사의 이사회 구성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문제에 종종 부딪힌다. 한 바이오 관련 기업에 제약 분야 교수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올랐다. 임상 성공이 기업가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회사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후보 개인의 경력과 자질은 훌륭했지만, 우리 연구소는 반대했다. 그 기업의 사외이사는 총 3명이었는데, 기존의 2명도 의과 및 제약 분야 교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기업은 신약 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늦장 공시하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주 가치를 훼손한 바 있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감사위원까지 겸하는 것이라면 재무와 내부통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더 적절했다. 부분적 사실보다 ‘전체 영향력’을 고려한 현실을 봐야 한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단편적으로는 분명 사실이지만 전체 관점에서는 진실이 아닌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현실을 고려한 법 조항 간 충돌 문제도 자주 접하게 된다. 2019년 초 10.8%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제363조의 2의 일반 규정을 근거로 투자대상 회사에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42조의 6의 소수주주권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안건 자체를 폐기했다. 제안 당시 해당 주주가 5개월 동안만 보유해 주주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주주제안을 막는 것이 우선인가,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우선인가, 법 조항끼리 어긋난다. 입법론적 정리가 필요하다.

노자는 ‘모든 것에 음과 양이 있다(萬物負陰而抱陽)’고 했다. 이론과 현실이 공존하고 부분과 전체가 상호 작용하며, 당사자의 입장 속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어느 하나만 고려하면 성급한 판단이 되기 쉽다. 그래서 노자는 바로 뒤에 문구를 하나 더 넣어 해결책을 제시한다. “양자 모두를 역동적으로 고려할 때 최적의 합이 도출된다(沖氣以爲和).” 기업 지배구조를 바라볼 때도 필요한 놀라운 가르침이다.

CEO 칼럼



서 용 식
수목건축 대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3월 발표해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청년 1인 가구 5만6000호, 신혼부부 2만4000호 등 총 8만 호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한시적 정책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규제 및 절차 완화, 자금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있다. 일반 건물보다 용적률을 2~3배 높게 지을 수 있고, 서울시 여신위 회화를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건설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의 9개 심의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와 승인 대상을 확대해 사업 접수 후 결정 고 시까지 평균 6개월, 인허가까지 포함해 평균 1년이 소요되는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절차를 완화해 주고 있다.

“숨소리도 안 내고, 관망만 하고 있다.” 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검찰의 ‘타다’ 기소 뒤 업계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안 그래도 추위진 날씨 탓에 비수기에 접어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괜한 불통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타다와 달리 공유 전동킥보드는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의 기소가 미친 영향은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타다가 위법으로 판단될 위기에 놓인 탓이다. 위법으로 판단된다면 그 즉시 후발 업체에 더해 모빌리티 업계 전반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고질이다. 카풀 시장이 제도에 가로막혀 정체된 사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급성

이렇게 지어진 청년주택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공공임대는 시세의 55% 내외에서 서울시가 직접 정하고, 민간임대 중 특별공급은 사업주인 서울시가 공사 전과 입주자 모집 전 두 차례 협의를 통해 시세의 85% 이하, 일반 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로 하여 의무 임대기간인 8년 운영이 지나면 일반에 분양이 가능한 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건, 2018년 9건, 2019년 10월 기준 17건으로 총 41곳에서 1만6351실이 진행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개발을 통해 용적률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토지구 및 개발주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8월 가장 먼저 입주자 모집에 나선 충청로역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499실의 평균 경쟁률이 18대 1을 기록하는 등 실제로 청년층의 수요와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외로 신혼부부용 35㎡형은 미달된 것을 보면 수요자인 신혼부부의 요구에 적합한 상품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택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맞춤형 청년 주거공간이 계획이 되기 위해 수요자의 필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이 중요하다. 깔끔한 디자인의 실용적인 주거와 커뮤니티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거주뿐만 아니라 일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문화 창작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입주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맞춰 공급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입지 특성과 예상 수요자 타겟팅을 중심으로 사업기획에서부터 향후 임대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들어가야 한다. 그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평면 개발과 커뮤니티 공간 계획, 공용 공간 고급화 등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좋은 질의 주거공간과 디자인의 청년주택이 계획되기 위해서는 상품기획에서 사업성 분석, 마케팅, 임대 운영·관리

등 통합적 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가 중요하다. PM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각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 사업 운영이 되어야 한다.

PM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내국 동 임대주택의 경우, 실별 분양 후 임대하는 방식이 아닌 100% 전실을 임대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을 위한 운동, 라운지, 세미나실, 파티룸 등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또한 입주민이 다채롭게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계획되었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임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도 임대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여기에 맞춘 미래 지향적 임대주택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주택도 빌려 쓰는 공유경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임대주택도 브랜딩되어 가격에 맞춰 지역별로 골라 살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해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면 당국이 그때 가서야 칼을 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 부랴부랴 규제를 만드는 상황은 ‘타다 갈등’이 걸었던 길이다.

한 승차 공유 스타트업 대표는 “타다의 위기를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위기로 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의 말처럼 타다의 기소와 무관하게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꾸준히 혁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을 따르지 않는다면 피해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손해를 포함해 후배 스타트업들의 도전정신 등은 환산도 어려울 것이다. 제도 방치의 희생양은 ‘타다’ 하나로 족하지 않을까.

☆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명언
“난초를 그림에 법이 있어도 안 되고 법이 없어도 안 된다[寫蘭有法不可無法][不可].”
조선 금석학파를 성립하고, 추사체를 완성한 문신. 단순한 예술가·학자가 아니라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 왕조의 구문화 체제로부터 신문화의 전개를 가능케 한 선각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786~1856.

☆ 고사성어 / 문전작라(門前雀羅)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 문 앞에 잡새 잡는 그물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쓸쓸하다는 뜻. 원전은 사기(史記) 급정열전(汲鄭列傳). “급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 정도의 현인이라도 세력이 있으면 빈객이 열배로 늘어나지만 세력이 없으면 당장 모두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보통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적공(翟公)이 정위(廷尉)가 되자 빈객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붐볐다. 그러나 그가 면직되자 빈객은 금세 발길을 끊었다. 집 안팎이 어찌나 한산한지 ‘문 앞(雀)에 새그물을 쳐 놓을 수 있을 정도[門外可設雀羅]’다.”

☆ 시사상식 / 던바의 법칙
인류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가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는 150명이라고 주장한 가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친구가 1000명이 넘어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며, 그중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고작 20명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주책
한자어 ‘무엇에 마음을 붙인다’는 뜻의 주착(主着)에서 왔다.

☆ 유머 / 변호사 가족의 비밀
아버지 사건들을 물려받은 아들이 들뜬 모습으로 집에 와 소리쳤다. “아버지가 오 랫동안 끌어왔던 회장님 사건을 결국 제가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그 사건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 지 민 중기IT부/aaaa3469@

희생양은 ‘타다’ 하나로 족하다

장했지만, 전동킥보드 업체들 역시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전거도로 운행이나 면허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 정의 같은 기본적 수준의 논의도 부족하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km

/h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합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개인이동수단 관련 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가시화하지 않았다.

제도가 한발도 나아가지 않는 사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급성장했다. 관련 법규는 그대로인데 이용자들은 대폭 증가

소주병과 연예인, 사회적 비용은 누가

이영애·김태희·성유리·하지원·이민정·아이유·아이린·이효리·유이·신민아·수지.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인기 여성 연예인, 그리고 소주 광고 모델이라는 점이다.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소주병에 붙어 있던 이들의 얼굴을 앞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뉴스 댓글을 보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다. 담배에는 보기에도 끔찍한 경고 사진이 붙어 있는데, 담배와 마찬가지로 폐해가 심각한 술은 마치 음료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값싸고 친숙한 서민의 술인데 이마저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도 상당수다. 이들은 담배 가격 인상에 경고 사진을 붙여 흡연을 어렵게 한 데 이어, 이제 소주까지 제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서민들은 무엇에 위로를 받느냐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진 담배는 상록 당시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질환에 효능이 있는 약초로 여겨졌다. 구충(驅蟲)을 목적으로 어린아이들까지 흡연을 시키는 일도 다반사였다. 훈장과 학도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피울 정도로 별다른 금기가 없다 보니 흡연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퍼졌다. 그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다.

술 역시 우리 조상들은 호방하게 마셨다. 요셋말로 ‘원샷’은 기본이었고, ‘과음’은 필수였다. 양반들이 따랐던 ‘항음주

데스크칼럼

한 지 운

디지털뉴스룸 에디터



레(鄉釀西禮)’를 보면, 윗사람의 술을 받은 아랫사람은 ‘졸치(卒釀)’하는 것이 법도였다. ‘졸치’는 단숨에 잔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영조가 연회에 사용한 ‘치(釀)’라고 불렀던 술잔의 양은 여섯 흡에 달했다고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한 흡이 180ml에 해당하니, ‘치’에 술을 가득 담으면 1l가 넘는 양이다. 그런데 ‘치’는 아래가 동물의 뿔 끝처럼 뾰족한 모양이어서 술을 따르면 다 마실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과음을 위한 최적의 술잔인 셈이다.

이것뿐이라. 폭탄주의 조상이 조선 중기에 등장하기도 했다. 막걸리에 독한 증류식 소주를 섞는 ‘혼돈주(混屯酒)’는 관직에서 쫓겨나 의주에서 귀양살이하던 정희량이 직접 담근 술로, 그는 ‘혼돈주가(混屯酒歌)’라는 한시를 쓰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술, 담배에 관대한 사회였다. 요사이 담배는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여겨질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지만, 술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너그럽다. 담배나 술이나 모두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술은 친목을 위해, 사회생활을 위해,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정서가 일반적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3년 추산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으로 인한 비용(7조1258억 원)보다 25%가량 더 많은 9조452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금연사업이 138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 원에 불과하다. 음주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정책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홍보(PR)의 정립자’로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1891~1995)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마케팅은 ‘자유의 횃불(torches of freedom)’ 캠페인이다. 버네이스는 1929년 부활절에 여성 30명에게 담배를 피우면서 행진하게 했고, 이들은 “여성도 남성처럼 길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자유의 횃불을 들자”라고 외쳤다. 당시 여성들은 담배가 자유의 상징이자 여권 신장이라고 믿었다. 조작된 이미지는 여성의 흡연율을 크게 높였고, 버네이스에게 마케팅을 맡긴 담배업체 아메리칸토바코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쾌재를 불렀다.

인기 연예인의 얼굴을 소주병에 붙이는 마케팅은 음주를 진속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갓 성인이 된 어린 광고 모델을 기용해 음주 연령층을 낮추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주류업체의 매출이 오르는 만큼,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늘어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 소주병에 그려진 광고 모델을 보고 의아해하던 외국인인 ‘실종 아동 사진이냐’라고 물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소주병에 연예인 사진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오해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을까. goguma@

박은평의 개평(概評)



금융부 차장

‘지금 우리는 흑시 세상을 /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 너무 가까워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경림의 시 ‘장자(莊子)를 빌려: 원통에서’의 마지막 구절이다. 시는 장자의 ‘추수편’에 실린 ‘대지관어원근(大知觀於遠近)’을 빌려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워서도 볼 줄 아는 것’을 드러낸 작품이다. 지금 금융당국에 전하고 싶은 글귀다. 금융권의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팔을 비틀어 일자리 창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첫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구조적 변화 추세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해 14개 은행의 12년치 직원 채용 자료를 분

우물에 갇힌 금융당국의 일자리 창출

석해 은행 자체 채용·아웃소싱 인원을 전수조사하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조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간접적 일자리 창출 규모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결과 발표는 금융위가 예고한 8월에서 넉 달가량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 측은 “처음하는 조사이다 보니 통계를 취합하면서 실제 데이터 등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달 안에는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짓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의 국내 영업점 수는 지난해 말 3087개에서 올해 6월 말 3044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는 5만7082명에서 5만6030명으로 감소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은행 비대면 계좌 수는 작년 대비 76.4% 증가했다.

금융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10개 은행을 시작

으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하다. 핀테크 사업자들은 일일이 개별 은행과 제휴를 맺을 필요 없이, 모든 은행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당국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보는 시각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사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근무 유연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고전적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일자리 창출효과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개별 은행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이미 금융위는 그 결과를 손에 쥐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물 안에 갇힌 시각에서 벗어나 대지관어원근의 자세로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 pepe@

사설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공급부족 어쩔 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이 지정됐다. 집값이 비싸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가 예고한 동 단위의 ‘핀셋 지정’ 이면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표적인 것도 예상과 다르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다른 곳도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상한제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지역 분양가는 곧 관보 고시와 함께 정부가 통제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는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합한 가격 이하로 낮추도록 강제된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5~10년 전매가 제한되고,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시행됐다가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됐다. 4년 7개월 만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대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다. 높은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인데,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공급 부족에 따른 향후 주택가격 상승, ‘로또 아파트’ 투기 등의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

기 때문이다.

이번에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 모두 인기지역이다. 수요가 넘치지만, 택지 부족으로 재건축 말고 새 아파트 공급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 90곳, 9만8000여 가구가 당장 타격을 입는다.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은 나빠진다.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곳이 속출하면서 주택공급도 쪼그라들 게 분명하다.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된 7월 이후 서울 집값은 급등했다. 청약경쟁과 주택 매수심리도 달아올랐다. 재건축·재개발 냉각이 예상되는 데 따른 시장의 반응이고, 새 집 공급이 끊겨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하겠다는 수요자들의 당연한 선택이다. 정부가 강제로 분양가를 낮춘다 해도,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크면 반드시 ‘로또 아파트’ 투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시장은 결코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지는 좋다. 하지만 과거의 분양가상한제도 공급 위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실패했다. 싸게 분양한 새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낮추지 못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릴 마땅한 대책이 없는 까닭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시장만 왜곡하고 앞으로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만 커진다.



건강 100세

녹내장이 있으면 실명되나요?

녹내장은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다. 대부분 환자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실명’ 또는 ‘시력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녹내장에서 시신경을 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눈 속의 높은 압력(안압)이다. 높은 안압은 시신경을 압박해 점점 약해지게 한다. 따라서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높은 안압’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다. 가령 시신경이 튼튼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안압이 더 높아도 별 이상이 생기지 않지만 시신경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정상범위인 안압에서도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녹내장에서는 시신경과 안압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범위(대략 10~20 mmHg) 내에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시신경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생기는 ‘정상안압녹내장’이다. 시신경이 약해지는 원인은 노화, 선천적

인 요인, 근시, 가족력 등이 있다. 안압이 정상범위라 하더라도 시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안압을 더 낮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정상안압녹내장은 너무 늦지 않게 진단받거나 진단 후에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문제는 안압이 정상보다 훨씬 높은 범위로 올라가는 폐쇄각녹내장, 거짓비늘녹내장, 신생혈관녹내장, 포도막염녹내장 등의 녹내장이다. 이런 형태의 녹내장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몇 주 만에 실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녹내장을 진단받게 되면 먼저 녹내장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녹내장의 종류가 순한 형태라면 너무 서두르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멀리 내다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반면 독한 형태의 녹내장이면 즉시 안압 조절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안압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를 집중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압을 낮추주는 녹내장 수술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황영훈
건양대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안과전문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기분 좋은 할인도 **최대 10% 특별 할인**
기적 같은 혜택도 **무이자 할부 / 캐시백**
기아 듀얼 페스타에 다 있다!

기아 듀얼 페스타





The Power to Surprise



기아 듀얼 페스타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

빅~세일 페스타	주요 차종 최대 10% 특별할인
금융 페스타	인기차종 무이자 할부 / 레드멤버스 전용카드 더블 캐시백
밸류업 초이스	보증연장 / 신차교환 프로그램

※ 적용 차종 및 차종별 할인 혜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Care Service
799-0000 (평일 9시~18시)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K3 스마트스트림 G1.6 1.6인치 : 복합연비 15.2km/ℓ (도시연비 : 13.6km/ℓ, 고속도로연비 : 17.7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235kg | 복합CO₂ 배출량 108g/km - 2등급 > K3 스마트스트림 G1.6 1.6인치 : 복합연비 14.4km/ℓ (도시연비 : 12.8km/ℓ, 고속도로연비 : 16.8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260kg | 복합CO₂ 배출량 114g/km - 2등급 > K3 스마트스트림 G1.6 1.7인치 : 복합연비 14.1km/ℓ (도시연비 : 12.6km/ℓ, 고속도로연비 : 16.3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259kg | 복합CO₂ 배출량 117g/km - 2등급 > 스포티지 스마트스트림 D1.6 (유로6) 2WD 17인치 자동7단 : 복합연비 16.3km/ℓ (도시연비 : 15.5km/ℓ, 고속도로연비 : 17.9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75kg | 복합CO₂ 배출량 114g/km - 1등급 > 스포티지 스마트스트림 D1.6 (유로6) 2WD 18인치 자동7단 : 복합연비 15.8km/ℓ (도시연비 : 15.0km/ℓ, 고속도로연비 : 16.8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90kg | 복합CO₂ 배출량 118g/km - 2등급 > 스포티지 스마트스트림 D1.6 (유로6) 2WD 19인치 자동7단 : 복합연비 15.3km/ℓ (도시연비 : 14.7km/ℓ, 고속도로연비 : 16.2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29kg | 복합CO₂ 배출량 122g/km - 2등급 > 쏘렌토 R2.0 E-VGT 디젤 2WD 자동 8단 1SG5(인송) 18인치 : 복합연비 13.8km/ℓ (도시연비 : 12.7km/ℓ, 고속도로연비 : 15.4km/ℓ)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829kg | 복합CO₂ 배출량 138g/km - 2등급 > 쏘렌토 R2.0 E-VGT 디젤 2WD 자동 8단 1SG5(인송) 19인치 : 복합연비 13.1km/ℓ (도시연비 : 12.0km/ℓ, 고속도로연비 : 14.7km/ℓ)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860kg | 복합CO₂ 배출량 146g/km - 3등급 > 쏘렌토 R2.0 E-VGT 디젤 4WD 자동 8단 1SG5(인송) 18인치 : 복합연비 12.4km/ℓ (도시연비 : 11.5km/ℓ, 고속도로연비 : 13.7km/ℓ)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909kg | 복합CO₂ 배출량 155g/km - 3등급 > 쏘렌토 R2.0 E-VGT 디젤 4WD 자동 8단 1SG5(인송) 19인치 : 복합연비 12.0km/ℓ (도시연비 : 11.1km/ℓ, 고속도로연비 : 13.4km/ℓ)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915kg | 복합CO₂ 배출량 160g/km - 3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차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